

# ‘친구·우정’을 향한 설화문학적 상상력과 문화의식\*

-문헌·구비(口碑)설화에 나타난  
‘청탁’과 ‘배신’의 담론을 중심으로-

이인경\*\*

- I. 논의의 출발
- II. 상부상조(相扶相助)와 공생(共生)의 논리
- III. 친구를 향한 불안한 시선
- IV. 마무리

## <국문초록>

문헌과 구비(口碑)로 전승되는 설화작품에서 ‘친구·우정’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과 문화의식을 살펴보았다. ‘우정’을 주제로 삼은 설화들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개요는 흔히 ‘청탁’과 ‘배신’으로 나타난다. 진정한 친구란 도덕성과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친구의 청탁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문화의식이 지배적이었다. 청탁의 거부는 곧 배신을 의미하므로, 당사자는 청탁의 도덕적 결함을 묵과하고 수용하기 마련이었다. 우정을 내세운 이런 ‘청탁’ 문화는, 빈번하게 공적 질서와의 윤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 친구의 비리(非理)를 눈감아주고, 그의 불법행위를 돕기도 하며, 자신의 공권력을 사사롭게 집행하기도 한다. 그 행위가 비록 사회적 정의, 공적 질서, 도덕적 규범, 인간의 보편적 윤리를 훼손할지라도 친구를 위한 ‘의리(義理)’라는 명분

\* 본 논문은 2016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 인제대학교 인문문화융합학부 부교수

으로 모든 것이 용인(容認)되고 미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교우관계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배신’인데, 이는 우정이 ‘목적’이 아닌 ‘도구’로 기능할 때 나타나는 혼한 결과이다. 설화문학적 상상력은 ‘잠재적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치명적인 청탁’을 고안해냈는데, 이런 ‘친구시험’에는 개별자로서의 상대방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다. 또한 ‘나의 분신(分身)’이나 유사(類似)가족으로서의 친구 개념은, 우정의 친밀성을 지고(至高)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친구의 타자성(他者性)을 완전히 소거(消去)해버림으로써 상대방을 자신의 욕망대로 제압하고 통제하려는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설화문학적 상상력과 문화의식은 ‘우정’이 가져다주는 무한대의 효용만을 강조할 뿐, ‘의리’라는 명분으로 포장되는 ‘청탁’과 ‘공모’의 폭력성과 범죄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았다. 이제 우정은 인정(人情)과 의리(義理)라는 명분에 합당한 책선(責善)과 보인(輔仁)의 윤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친구는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공감의 대상이지,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나의 부속물(附屬物)이거나 내 필요를 채워주는 원조자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친구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 역시 친구가 아닌 동업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친구는 내 인격의 성숙을 돕는 스승이고 삶의 동반자이며,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다. 친구의 배신을 경계하기 전에 혹시 자신이 친구를 배신하진 않았는지부터 살피고, 지금 스스로 진정한 친구로서 잘 살고 있는지를 자성(自省)하는 성숙한 태도가 요구된다. 모든 만남은 결국 유유상종(類類相從)이기 때문이다.

핵심어: 문헌설화, 구비설화, 설화문학적 상상력, 문화의식, 친구, 우정, 청탁, 배신, 우도(友道), 의리, 공모(共謀).

## 1. 논의의 출발

본 연구는 한국의 문헌설화와 구비설화에 형상화된 ‘친구’와 ‘우정’에 대한 문화의식과 도덕적 상상력을 주목한 것이다.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의 ‘칭탁’과 ‘배신’을 둘러싼 전통사회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설화에는 민족공동체적 삶의 궤적과 공유된 문화의식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그 안에 녹아든 문화적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은 지금 우리사회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단서가 된다. 또한 설화는 허구화된 서사이지만 인간의 보편적 욕망과 가치관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설화의 향유는 개인의 삶을 대상화하고 동시에 타자의 삶을 포괄적으로 조망하는 도덕적 성찰의 기회가 된다. 이런 인식의 확장은 자신의 현재적 삶을 반추하고 내면을 성찰하는 인문학적 가치를 제고(提高)하게 된다.

‘친구·우정’에 대한 이런 연구가 ‘세계에 대한 통찰과 자기반성’이라는 인문학적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관습화된 대상과 인식에 대한 ‘낮설게 하기’와 ‘거리두기’ 과정이 필요하다. 문화공동체의 암묵적 동의가 실제로도 개인적 행위의 정당성이나 도덕성을 온전히 보증해주는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낮설게 하기’를 적용한 설화읽기는 전통사회가 관습적으로 용인해온 문화행위들의 도덕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즉, 과거로부터 오랜 시간 공감적 지지를 받으며 전승되어온 설화들을 현재적 시점에서 거리를 두고 낮설게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동양에서는 “지란지교(芝蘭之交), 관포지교(管鮑之交), 금석지교(金石之交), 금란지계(金蘭之契), 수어지교(水魚之交), 교칠지교(膠漆之交)”와 같이 깊은 우정을 기리는 수많은 고사성어가 전해져왔다. 농경사회였던 전통사회의 개인은 개인적(個我的) 자아(自我)보다 혈연중심 공동체의 구성원이란 점에서 정체감을 찾았으며, 자신의 감정과 물질을 가족과 공유하는 문화의식을 내면화해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의 현대인에게 그런 이전의 문화의식이 점차 설득력을 잃고,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우정관(友情觀)’은 여전히 탐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대인들은 매일 반복되는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친구와의 ‘협업(協

業)과 공생(共生)’보다는 타인(他人)과의 ‘경쟁과 독점’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고립되어가고 있다. 본고는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전통적인 ‘우정’ 담론이 생성하는 도덕성의 문제를 포착하는 데에 주력하고자 한다. 우리의 현재는 어제의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임을 상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해법을 얻으려는 전략인 것이다. 이런 시도는 ‘바람직한 우정과 그 현재적 의미’를 탐구해보는 최종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발전해갈 것이다.<sup>1)</sup>

일찍이 우정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임형택은, ‘정신적 교섭만 강조하고 인간성을 무시하며 신분에 의해 인간관계가 규제되고 봉당(朋黨)으로 분열된 양반사회에서는 평등윤리인 우정이 실현되기 어려웠고 그 의미도 왜곡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연암은 이런 종래의 규범과 예속의 질곡에서 벗어나 상호감정과 의식을 통한 우정을 모색하였음을 논하였다.<sup>2)</sup>

이후로 한문학(漢文學)을 중심으로 우정, 우도(友道), 우도론(友道論)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sup>3)</sup> 이 연구자들이 주목한 문제의식은 우도가 실종된 당대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비판의식과 성찰이다. 이들이 분석한 연구대상들에는 모두 우도가 무너지고 진정한 친구가 실종된 시대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비판의식이 교술(敎述)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그들

1) 분석해야 할 ‘친구·우정’ 선풍작품들의 분량과 연구내용의 서술 분량을 고려할 때, 지면(紙面)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청탁·배신’의 담론에 초점에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 ‘바람직한 우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후속연구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2) 임형택, 『朴燕巖의 우정론과 윤리의식의 방향-〈馬駟傳〉과 〈穢德先生傳〉의 분석』, 『한국한문학연구』 제1집, 한국한문학회, 1976, 95~117면.

3) 정만섭, 『友道와 友道論의 概念과 來歷』, 『한국고전연구』 제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359~404면.

박성순, 『우정의 윤리학과 북학파의 문학사상』, 『국어국문학』 제129집, 국어국문학회, 2001, 251~274면.

박수밀, 『18세기 友道論의 문학·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제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85~108면.

박성순, 『우정의 구조와 윤리-한·중 교우론에 대한 문학적 사유』, 『한국문학연구』 제28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5.

김광기, 『허균의 우정론과 그 의미』, 『비평문학』 제37집, 한국비평문학회, 2010, 115~138면.

박수밀, 『소통의 맥락에서 본 조선 후기 友情論의 양상』, 『동방한문학』 제65집, 동방한문학회, 2015.

강민구, 『우리나라 중세 友道論에 대한 고찰 I-友道論의 史的 전개-』, 『동방한문학』 제71집, 동방한문학회, 2017.

이 직접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진정한 친구의 아름다운 사례나 우도를 실현하려는 자신의 노력이 재현된 서사(敍事)는 등장하지 않는다.<sup>4)</sup> 이 연구들은 우도와 우도론<sup>5)</sup>이라는 규범적 관념론에 초점을 맞춘 논의라는 점에서, 우정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의 범주에서 논의되기 어렵다.

반면, 김현룡은 문헌설화(야담) 가운데 우정이나 친분을 소재로 한 자료를 ‘교제(交際)’라는 표제어로 묶어서 줄거리를 소개하고 해설을 간략히 붙였다.<sup>6)</sup> 이후로도 설화 속 ‘우정’ 담론에 대한 종합적 논의는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김혜정이 야담 두 편에 나타난 여성의 우정에 대해 고찰하였으며,<sup>7)</sup> 신익철은 야담에 수록된 황진이의 일화에서 ‘예교와 신분의 구속에서 벗어나 평등과 자유를 회구하는 정신’을 우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다.<sup>8)</sup> 김수진은 이인상(李麟祥)의 문학을 논하면서 당시 유행하던 설화를 이인상이 재구성한 『시우전(市友傳)』에 나타난 우정론을 특히 주목한 바 있다.<sup>9)</sup>

최정호는 한국사회의 복(福)에 관한 담론을 전개하면서, 타자(他者)의 부재가 낳은 한국문학의 특징으로서, 우리나라 고전소설에는 ‘친구’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10)</sup> 그것의 사실여부는 관련분야의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지만, 친구라는 존재가 부각된 고전소설이 흔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구비설화의 경우는 어떨까?<sup>11)</sup> ‘친구’ 담론과 관련된 설화작품

- 4) 연암의 사례를 제외하면 그렇다.
- 5) 우도란 친구를 사귀는 도리이고, 우도론은 그 도리를 따지는 담론이므로, 이는 우정의 구체적 실현양태라는 문학적 형상화와 거리가 먼 추상적인 메타적 담론이다.
- 6)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2, 건국대출판부, 1998, 275~305면.
- 7) 김혜정, 『야담에 나타난 여성의 우정실현의 두 양상』, 『돈암어문학』 제18집, 돈암어문학회, 2005, 339~359면. 본문에서 다루는 설화는 모두 남성들 간의 ‘우정’ 담론이며, 여성들의 ‘우정’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한다. 여성의 ‘우정’을 소재로 한 설화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혜정이 검토한 설화 역시 두 여성이 한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두 여성 사이의 우정을 실현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여성들의 우정’의 전형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처와 첩이 서로 우애하기를 바라는 사대부남성들의 이상적 관념의 투사가 아닐까 한다.
- 8) 신익철, 『조선후기 필기·야담에 나타난 友道의 형상과 의미』, 『동방한문학』 제69집, 동방한문학회, 2016, 96면.
- 9) 김수진, 『능호관(凌壺館) 이인상(李麟祥)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55~207면; 김수진, 『18세기 老論系 知識人의 友情論』, 『한국한문학연구』 제52집, 한국한문학회, 2013. 이 설화는 현재 문헌설화와 구비설화로도 활발히 전승된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 10) 최정호, 『복에 관한 담론-기복사상과 한국의 기층문화』, 돌베개, 2010, 210~212면.

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은, 기대와는 달리 우정을 소재로 한 구비설화의 종류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내용 역시 우정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친구의 배신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내용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형제애’를 소재로 하는 설화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혈연관계가 없는 개인들 사이의 순수한 우정을 형상화한 작품은 매우 드문 편이다. 수많은 보은담(報恩談)들이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가 아니라, ‘그들은 의형제를 맺었다.’라는 종결부를 공유하는 현상도 매우 흥미롭다. 이는 우리 전통사회가 고수해온 ‘타자에 대한 경계와 배타성’ 그리고 ‘강력한 가족중심주의로의 지향’을 짐작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실마리로 하여, 설화문학에 투영된 ‘친구·우정’에 대한 문화의식과 도덕적 상상력<sup>12)</sup>을 특히 ‘청탁’과 ‘배신’이라는 담론을 중심으로 추적해 보기로 한다.

## II. 상부상조(相扶相助)와 공생(共生)의 논리

### 1. 친구 : 인맥(人脈), 연(緣)줄, 청탁(請託)의 대상

흔히 떠오르는 좋은 친구란 바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인데, 아래는 이런 우리의 문화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11) 과문(寡聞)한 탓일지 모르나, 구비설화에 나타난 “친구” 담론을 고찰한 연구는 찾지 못했다.

12) “도덕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도덕적 지성(moral intelligence)을 기르고 성장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도덕적 지성이란 ‘인간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활용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추상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실천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를 전후하여 이러한 도덕교육에서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학자들이 등장하였는데, 여기에는 존슨(M. Johnson)을 비롯하여 워녹(M. Warnock), 화이트(A. White), 레디포드(G. Reddford) 등이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로 도덕교육에서 이와 같은 ‘도덕적 상상력’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논문들이 여러 편 발표되고 있다.” 배상식, 『도덕교육에 있어서 도덕적 상상력의 의미와 적용』, 『동서철학연구』 제49집, 한국동서철학회, 2008, 418면; “문학작품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은 도덕적인 딜레마나 선악시비의 긴장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얼마든지 도덕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배상식, 위의 글, 436면)

1) 소제 노수신은 이조정랑(吏曹正郎)으로 있을 때 한 때 중망(重望)을 받았다. 마침 소제와 진복창은 시원(試院)에서 함께 일하였는데, 소제가 복창의 집에 한 번 찾아갔다가 그가 없어서 명함을 남기고 왔다. 복창이 소제의 방문을 매우 고맙게 여겨 사람들에게 그 명함을 늘 자랑하였다. 소제가 을사사화로 인해 정미년에 죄를 얻었을 때 복창이 힘써 구해서 그 죄가 가벼워졌다고 한다. 소제는 19년의 귀양살이에서 돌아와 서열을 뛰어넘어 정승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복창이 대사헌으로서 죄를 얻어 귀양을 가게 되었다. 소제는 복창이 자기를 구해줘서 살아났으므로, 복창의 아들을 자기 식구처럼 돌보았다. 복창의 아들이 소제의 집에 오면 다정하기가 자식과 같아 이름을 통하지 않고 바로 들어왔다고 한다.<sup>13)</sup>

노수신은 당시에 사림(士林)의 중망과 왕의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고,<sup>14)</sup> 진복창은 을사사화를 일으킨 소윤(小尹 명종의 외척)의 앞잡이로서 갖은 악행을 저질러서 지탄을 받은 인물이다.<sup>15)</sup> 진복창은 당시 세인(世)들의 신망이 높았던 노수신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 명함을 남겼던 일을 고맙게 여기고 기억하였다가, 노수신이 정미사화에 연루되어 큰 위기에 처하자 도와주었다. 19년의 귀양살이에서 돌아와 정승이 된 노수신 역시 그것을 기억하였다가, 파직되어 유배를 떠난 진복창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았다는 이야기이다.

이 문헌설화의 요지는 정적(政敵)의 관계였던 두 사람이 실제로는 서로

13) 윤근수, 『월정만필』, 국역 『대동야승』 XIV, 민족문화추진회, 1985, 336면.

14) “노수신은 인종 즉위 초에 정언이 되어 대윤(大尹)의 편에 서서 이기(李芑)를 탄핵하여 파직시켰으나, 명종이 즉위하고, 소윤(小尹) 윤원형(尹元衡)이 을사사화를 일으키자 이조좌랑의 직위에서 파직되어 순천으로 유배되었다. 그 후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죄가 가중됨으로써 진도로 이배(移配)되어 19년간 귀양살이를 하였다. 그는 온유하고 원만한 성격으로 인해 사림(士林)의 중망을 받았으며, 특히 선조의 지극한 존경과 은총을 받았다. 그의 덕행과 업적의 성과는 매우 다양하여 왕과 백성들, 그리고 많은 동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노수신>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참조.

15) “진복창은 철신 세도가였던 소윤(小尹) 윤원형(尹元衡)의 심복이 되어 을사사화때 대윤(大尹)을 숙청하는 데 크게 활약하여 많은 사람을 해치자 사관(史官)들로부터 ‘독사(毒蛇)’로 기록되었다. 이후로 자기를 추천한 구수담까지 역적으로 몰아 사사(賜死)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극적(極賊)’이라는 혹평을 들었다. 대사헌, 공조참판에 올랐으나 결국 윤원형으로부터 간교하고 음험한 인물로 배척받고 파직되어 삼수(三水)에 유배되었다. 1563년 죄가 가중되어 위리안치(圍籠安置)되었다가 유배지에서 죽었다. 교활한 성품과 어머니의 행실까지 방종하여 더욱 지탄을 받았으나 문장과 글씨에는 뛰어났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진복창>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참조.

도움을 주고받는 교제(交際)를 나눴다는 것이다. 진복창은 ‘악한’이라는 비난을 받던 인물이지만 그 역시도 자신을 인정해준 사람에게는 고마워하며 보은(報恩)할 줄 알았던 것이다. 즉, 소속된 정치집단(黨派)이 서로 다른 정적(政敵)일지라도, 상대방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주려 했던 것이다. 결말부분에서 노수신이 진복창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봤다’라는 표현은 그가 진복창을 형제의 의(義)로써 대했다는 의미가 된다. 서로 상대방에게 베푼 개인적 호의가 각자가 소속된 정치집단의 ‘입장 차이’와 ‘소통의 단절’을 극복하고, 두 사람을 의형제로 묶어준 셈이다.

노수신이 진복창의 아들을 보살핀 것은, 과거에 진복창이 자신을 구명(救命)한 것에 대한 개인적 보은이었다. 즉, 여기서 두 사람의 관계는 그들이 공유한 정치적 신념과 정서적 동질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에게 표한 개인적 온정(溫情)에 무게를 둔 것이었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의 도덕적 결함이나 사회적 평가와 무관하게 나를 이롭게 해주는 사람이 ‘내게는 친구’라는 논리도 가능하다. 개인의 사적(私的) 정리(情理)가 사회적 정의(正義)보다 우선한 것이다. ‘우정’이란 본질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정서임을 재확인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친구’란 대개 함께 공부한 동무를 의미하곤 한다. 아래 설화에서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2) 김좌근과 동문수학한 친구 중에 과거에 응하지 않아서 어렵게 사는 이가 있었다. 벼슬길에 나가기를 권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고 계속 거절하던 친구는 나이 들어서 생계가 곤란해지자 김좌근에게 벼슬자리를 부탁하러 갔다. 김좌근은 영의정인 아들 김병기를 불러 친구에게 인사하라고 시켰다. 아들은 평인(平人)인 친구에게 절하는 게 못마땅하여 옆눈질을 하며 절하였다. 벼슬자리를 부탁하는 처지인 친구가 김병기에게 맞절을 하려고 하자 김좌근이 그러지 못하게 저고리를 잡았다. 김좌근은 친구에게 아산군수를 시켜주겠다는 증서를 써주었다. 그러나 자기 절을 못갚아 받은 걸 괘씸히 여긴 김병기는 아버지 친구가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했다. 그걸 알게 된 김좌근은 단식하며, 김병기가 아버지를 모욕하였다며 그 불효를 임금님께 고해 사직시키겠다고 호통을 쳤다. 김병기는 잘못을 빌고 아버지의 친구를 아산군수에 앉혔다.<sup>16)</sup>

16) 『구비대계』 3-2, 182~188면, 지재현 구연, <김병기대감과 홍선대원군>

어릴 적 김좌근<sup>17)</sup>과 동문수학하던 남자가 친구 김좌근에게 벼슬자리를 청탁하였고, 김좌근은 영의정인 아들 김병기를 위협하여 마침내 친구를 아산군수에 앉혔다는 이야기이다. 이 설화에는 유교사회의 다양한 위계질서와 윤리적 의무들이 뒤엉켜 충돌하고 있다. 김좌근에게는 친구에 대한 정리(情理)가, 김병기에게는 효도와 공직자로서의 직무윤리가, 벼슬을 청탁하는 이에게는 영의정이라는 신분적 위계에 대한 예우가 문제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에 놓인 것은 김병기이다.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하면 불효가 되고, 청탁을 받아 사사로이 벼슬자리를 내주면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저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김병기는 벼슬자리를 내주지 않는 쪽을 택했는데, 이런 결정과정에서 그가 겪는 윤리적 갈등은 형상화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나이 많은 친구를 부자유친(父子有親)이나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유교윤리보다 벼슬을 중심으로 한 위계질서로 대우하려고 했다. 김병기는 아버지와 친분을 내세워 영의정인 자신의 우위(優位)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응징하고 싶었을 뿐, 공직자의 의무와 효도 사이의 윤리적 딜레마 따위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김좌근은 친구에게 아산군수를 시켜주겠다는 문서를 선뜻 써준다. 영의정을 아들로 둔 자신의 힘을 친구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욕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효도라는 가족윤리로 아들을 협박해서 친구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는 그의 행위는, 사실상 공무수행에서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한 것이다. 김좌근의 친구는 공(公)보다 사(私)를 앞세우는 정실주의(情實主義)와 학연(學緣)이라는 연줄을 통해 드디어 벼슬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sup>18)</sup>

17) “김좌근은 김병기를 입양하였다. 김좌근은 예조판서·형조판서·훈원대장·공조판서·호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세 번씩이나 보직되어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인품은 정량(貞亮: 곧으면서 맑음)하고 공평하였으나, 세도정치 시기의 핵심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의 역사에 끼친 영향이 컸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좌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참조.

18) “‘연줄망’은 구성원 개개인과 그 집단 내부의 차원에서는 전략적 의미의 합리적 행위일 수 있지만, 전체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연줄망적 집단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줄은 구조적 부패를 낳으며 이는 사회적 비효율성과 도덕적 위기를 가져온다. 둘째, 연줄의 패쇄적 특징은 경쟁과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닫힌 연줄망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넷째, 연줄 내에서만 존재하는 신뢰는 경제적 효율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연줄망은 민주사회의 정당성에 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효율성에 있어서도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한승완, 『‘연줄망’에서 ‘연결망’으로-한·중·일 3국의 연고

이 설화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일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공정한 사회질서보다 친밀한 사적 관계를 우선하는 우리의 전통적 문화의식과 관련이 있다.<sup>19)</sup> 이런 연고주의(緣故主義)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sup>20)</sup>

이런 공적 정의(公的 正義)와 인정(人情) 사이의 윤리적 충돌 현상을 아래 설화에서도 보게 된다.

3) 정태화(甲)는 젊은 시절 두 친구와 산사(山寺)에서 공부하였다. 정태화가 “나는 과거에 급제하여 임금을 요순처럼 만들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소원이네.”라고 했다. 다른 친구(乙)는 “나는 벼슬을 원치 않고, 산수 좋은 곳에서 일생을 즐기는 것이 소원이네.”라고 했다. 마지막 친구(丙)는 대답을 꺼리다가 마지못해서 “나는 화적의 괴수가 되어 수만 명의 무리를 거느리며 불의한 재물을 빼앗아 가무하는 동자와 여인과 함께 산해진미로 평생을 보내고자 하네.”라고 하자, 세 사람이 크게 웃었다. 이후 정태화는 재상이 되었고, 을(乙)은 벼슬을 하지 않아 생활이 어렵게 되었고, 병(丙)은 행적을 알 수 없었다. 정태화가 함경도 관찰사였을 때, 을이 함께 공부한 의리를 믿고 정태화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다가 회향에 이르렀다. 그때 건장한 종이 나타나 깊은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붉은 고관의 집 같은 곳에 붉은 비단옷 차림의 사람이 손을 잡고 안부를 묻는데, 바로 병이었다. “나는 공명이 부럽지 않네. 부하들이 수만 명이고 중국과 일본에서 온 물건이나 탐관오리의 재산을 빼앗아 부귀를 누리고 있지.” 다음 날, 병은 “정태화를 모르나? 그가 자네에게 주는 것은 기대에 못 미칠 걸세. 내가 선물을 보낼 테니, 집으로 돌아가게.”라고 하였다. 그 말을 믿지 않고 을이 정태화를 만나겠다

주의 유형 비교-], 『사회와 철학』 제8집, 사회와철학연구회, 2004, 105면.

- 19) “인정(人情)과 대인신뢰를 중시하는 한국의 전통적 문화특성이 종종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공정성과 사회정의의 규범과 상충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며, 이 경우에 공의 논리(公正)보다 사의 논리(人情)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규석, 『한국인의 공과 사의 영역 : 공정(公正)과 인정(人情)의 갈등』, 『한국심리학회지』 제6집, 한국심리학회, 2000, 40면.
- 20) “연고주의는 첫째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이익 지향성, 둘째 공적(公的)이지 못한 사적(私的) 당파성, 셋째 친밀한 집단의 자기중심적 내부거래 때문에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 그것이 사회의 어떤 가치보다 자본의 성장과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접촉할 경우, 특히 부정적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장현근, 『한국사회의 연고주의 담론과 유교와의 무관련성 연구』, 『아태연구』 제15집, 경희대학교국제지역연구원, 2008, 109면.

고 하자, 병은 자신의 위치를 발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리 언약하고 길을 떠나 정태화를 만난 을은, 군사를 주면 병을 잡아오겠다고 했다. 정태화가 ‘자네의 지략과 용맹으로는 불가하다’고 하였다. 을은 ‘나중에 화적떼가 늘어나면 누구의 책임이겠느냐고 따져서 허락을 받아냈는데, 정태화가 준 선물은 병이 말한 대로였다. 을은 병에게 곧바로 붙잡혔고, 병이 약속을 어겼음을 책망하자 을은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잡아떼었다. 병은 감염의 장교와 군사들에게 은자를 주어 풀어주고, 을에게는 칼도 아깝다면서 곤장을 쳐서 내쫓게 하였다. 병은 자신의 위치가 알려졌다면 집을 태웠다. 을이 고생 끝에 집에 돌아와 보니 웅장한 집으로 이사를 한 뒤였다. 병이 을의 이름으로 자신의 집에 편지와 재물을 보낸 것이었다. 그제야 을은 자신이 병을 배신한 것을 후회했다.’<sup>21)</sup>

함께 공부한 세 명의 친구들은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 정태화(甲)는 입신하여 함경도관찰사를 거쳐 재상이 되었고, 공명(公明) 대신 조용한 삶을 지향했던 친구(乙)는 가난해졌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원하는 친구(丙)는 화적떼의 괴수가 되어 산해진미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 정태화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길을 떠난 을은, 화적의 괴수가 되어 풍요롭게 살고 있는 병과 조우한다. 을은 ‘선물을 보내줄 테니 집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거처를 발설치 말라’는 병의 당부를 어기고, 기어이 정태화의 군사를 빌려 병을 잡으러 갔다가 붙잡히고 만다. 약속을 어겼음을 질타(叱咤)하는 병에게 을은 그런 적이 없다며 거짓말을 한다. 고생 끝에 을이 집에 돌아가 보니, 병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준 재물로 자기 가족들이 부자가 된 것을 보고 병을 배신한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는 내용이다.

이 설화에서 사건을 주도하는 친구인 을은, 세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심정적 분노를 느끼게 하는 인물이다. 세 명의 친구는 모두 어릴 적 자신의 꿈대로 살고 있었다. 을이 꿈꾸던 “산수 좋은 곳에서 즐기는 삶” 즉, 자연과 벗하여 사는 소박한 삶이란 얼핏 보기에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는 소박한 목표표로 보인다. 어린 을(乙)은 그런 생각으로 과거공부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은 채 편히 놀았을 법하다. 그러나 산수 좋은 곳에서 즐기며 사는 ‘늘어진 팔자(!)’에는 든든한 경제력이 필요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을은 마침내 궁핍해졌고, 할 수 없이 관찰사가 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한다.

21) 노명흠, 김동욱 역, <정태화의 두 친구>, 『(국역)동패략송』, 아세아문화사, 1996, 288~293면.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지 않고 친구에게 의존하려는 을의 미숙한 인격은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화적때 괴수인 친구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니, 곧바로 권력자에게 밀고하여 그 친구를 잡으러 쳐들어간다. 결국 병에게 붙잡히게 되자, 자기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한다. 종국에는 자신이 기대했던 관찰사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보내준 화적때 괴수 친구에게 감복하면서, 그를 배신한 것을 뒤늦게 후회한다. 요컨대, 을은 실리(實利)를 쫓아 시시때때로 얼굴을 바꾸는 기회주의자였던 것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한 정태화는 친구에게는 인색한 사람인 것처럼 그려진다. 관찰사의 경계력이 화적때 괴수에 비해 턱없이 빈약했던 탓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의 성정(性情)이 본래 그렇다는 의미일 수 있다. 화적때로부터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함경도 관찰사 정태화는 친구에게 인색하며 화적때 소탕이라는 목민관의 직무에도 소극적인 인물로 재현된다. 정태화가 화적때 괴수를 체포하려고 직접 나서지 않았던 이유는 옛 친구에 대한 사적(私的) 의리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는 을에게 군사를 내주어 병을 잡으러 보낸다.

이 설화가 남겨준 여운은 참으로 복잡하다. 열심히 과거공부를 해서 공직자가 된 모범생 친구보다 화적때가 된 부유한 친구와 사귀는 것이 더 유리했다는 속물적인 가치관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가운데 누가 진정한 친구일 것인가? 화적때 괴수가 되어 탈취한 재물로 가난한 친구를 도와준 준 병(丙)인가? 그는 자진해서 많은 재물을 을에게 주었다. 그것은 어릴 적 친구가 반가워서 그리고 가난한 친구를 도와주고픈 의리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화적때 괴수가 되어 사치스럽게 살고 싶다’는 어릴 적 자신의 호방한 꿈을 비웃어주던 옛 친구들에 대한 보상심리와 과시욕이 분출했던 것은 아닐까? 어쨌든, 병은 을을 믿었기에 호의를 베풀었다. 게다가 그런 자신을 배신하고서 사과는커녕 거짓말로 일관하는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 을을 죽이지 않고 곤장을 쳐서 내쫓는 관용도 베푼다. 그는 정말 ‘의리 있는 친구’로 묘사되는 것이다. 게다가 병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장교와 군사들도 은자를 주어 돌려보내는데, 마치 강도가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들을 돈을 집어주면서 돌려보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 설화에서 탐관오리의 재산을 탈취하여 호화스런 삶을 누리는 화적떼 괴수를 이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미화하는 것은, 탐관오리(貪官汚吏)에 대한 극심한 분노가 투영된 결과일 것이다. 불의한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는 화적떼의 복수극에 통쾌함을 느끼며 공감적 지지를 보낸 것이다. 그렇다면, 탐관오리에게서 탈취한 재물로 사치를 누리는 화적떼 괴수의 삶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그 재물로 음주가무(飲酒歌舞)를 즐기는 화적떼 괴수의 사치가, 힘없는 백성을 가림주구(苛斂誅求)해서 사욕(私慾)을 채우는 탐관오리의 악행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 설화에서도 화적떼 괴수가 된 친구에게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권고(勸告)하는 “진정한 친구”는 등장하지 않는다. 병을 붙잡아오겠다는 을의 행동 역시 그간의 행적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화적떼를 소탕하여 공동체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대의(大義)를 위함으로 보기 어렵다. 을은 화적떼 괴수인 친구의 풍요와 빈곤한 자신의 왜소함을 견주면서 모종의 질투심을 분출했을 수도 있다. 혹은 화적떼 소탕이라는 공로를 앞세워 관찰사인 친구로부터 풍족한 보상을 얻고자 한 것일지도 모른다. 모든 행위는 그 결과가 아닌 그 의지와 동기에 의해 선악을 판단해야 한다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에 비추어 보면, 병을 향한 을의 태도는 한 순간도 선(善)한 적이 없었다. 을은 두 친구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했던 것이다. 이 설화에는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인물이 한 명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아래 설화들은 친구 사이의 정리(情理)는 죽음도 막지 못한다는 인식을 보인다.

4) 어느 날 갑(甲)에게 예전에 죽은 친구가 찾아와서 다짜고짜 점심을 차려달라고 하였다. 갑이 밥을 정성껏 차려 대접해주었다. 죽은 친구는 자신은 저승사자인데 갑을 데리러 왔다고 하였다. 갑이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저승사자는 갑 대신 다른 사람을 데려가겠다고 하였다. 다음날 오씨네 집에서 부고(訃告)가 전해졌다.<sup>22)</sup>

22) 『구비대계』 6-12, 1028~1029면, 김복규 구연, <낯 귀신>.

5)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던 김대감과 이대감이 있었다. 김대감이 먼저 죽어 저승에 가서 저승차사가 되었는데 염라대왕이 이대감의 손자를 잡아오라고 명령하였다. 저승차사는 이대감에게 찾아가서 ‘자네 손자를 잡아가면 인정이 상하고, 안 잡아가면 내가 3년 동안 저승에 들어가지 못해서 객귀가 된다.’고 하면서 어찌 해야 할지 의논하였다. 이대감이 제안하기를, 저승차사가 3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귀한 집 아들들을 앓게 한 후에 알려주면 그 집에 가서 자신이 사연을 다 아는 듯이 말하고 푸짐하게 굿을 하라고 할 테니, 그 동안 저승차사가 음식을 먹고 병을 낫게 해주자고 하였다. 하지만 막상 경문을 읽을 줄 몰랐던 이대감은 ‘대감’이라는 말만 뒤에다 붙이면서 각종 벼슬이름(政脚圖)을 길게 읊어댔다. 동네에 괴질이 생겼는데 아무 정승이 가서 “대감”만 찾으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생겼다 그렇게 3년을 지낸 후에 저승차사는 저승으로 돌아가고 이대감의 손자는 목숨을 지켰다.<sup>23)</sup>

저승차사가 이승의 친구를 찾아와 식사대접을 받고 친구 대신 다른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갔다는 이 설화는 저승차사를 친구로 두면 죽음도 면할 수 있다거나, 뇌물을 주면 목숨도 건질 있다는 설화적 상상력을 담고 있다.<sup>24)</sup> 저승차사는 자신의 공무를 엉터리로 처리하여 친구를 살려준다. 저승차사가 식사대접을 요구한 것은 모든 청탁에는 뇌물이 따른다는 문화의식을 드러낸다. 저승차사와 친분을 쌓지 못한 오씨는 뇌물을 쓸 기회조차도 없이 졸지에 저승으로 끌려가는 억울함을 당한다. 이승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사태는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사후세계의 질서마저도 사적 친분에 의해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승자의 의식을 보게 된다.<sup>25)</sup>

그런가 하면 5)번 설화에서는 저승차사가 친구 이대감의 손자를 살려주기 위해 일부러 괴질(怪疾)을 퍼뜨려서 굿을 하도록 유도하고, 저승차사는 굿판의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버는 사기극을 공모한다. 이대감은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경문을 외우는 척하느라고 벼슬이름 장부를 줄줄이 읽어대는 사기극까지 연출한다.<sup>26)</sup> 김대감은 저승차사의 공무수행보다 친구와의

23) 『구비대계』 3-2, 68~70면, 김광식 구연, <무당이 대감(大監) 찾는 유래>

24) 이는 서사무가 <차사본풀이>에서도 볼 수 있는 문학적 상상력이다.

25) 문헌설화에는 죽어서 마마귀신이 된 친구가 이승의 친구의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이야기가 있다. 임방, 김동욱 외 역, 『천예록』, 명문당, 1995, 226~229면.

인정(人情)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 결국 두 대감의 사기극 때문에 많은 무고한 마을사람들이 괴질에 걸려 고생하면서 굶을 하느라 경제적 손실까지 입어야 했다. 사익을 위해 두 지식인이 공모한 비양심적인 지능범죄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다. 살아생전 사회지도층이었던 이 대감들에게서 공동체적 가치를 고민하는 도덕적 성찰을 찾아보기 어렵다. 김대감과 이대감의 이런 상부상조(공모)는 김대감의 사후에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닐 것임을 짐작하게 된다. 특히 양반벼슬에 대한 존칭을 유교사회에서 천시(賤視)하던 무당이 굶판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등치(等值)하는 설화적 상상력은 매우 풍자적이다.

## 2. 친구 : 나의 분신(分身), 유사(類似)가족

진정한 친구란 친구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이상화(理想化)되기도 하는데, 이런 사정을 아래 설화에서 보게 된다.

6) 한 친구가 매번 복창 정염에게 자신의 수명과 길흉에 대해서 캐물었다. 거절하던 복창은 마지못해서 대답했다. “자네 수명은 내년이면 다한다네. 수명을 늘리고 싶거든 만리현에 가서 소에게 싹을 싣고 샷갓과 도롱이를 쓴 노인에게 애걸하게.” 친구가 노인을 만나 자신의 목숨을 애걸하자, 노인은 사납게 꾸짖으며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느냐고 물었다. 노인은 정염이 그랬을 것이니, 정염의 수명에서 십칠 년을 덜어서 주겠다고 하였다. 정염은 “나는 이미 이렇게 될 걸 알았지. 그래서 매번 어렵다고 버텼던 걸세. 하지만 모든 게 운명인 걸 어찌 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친구가 노인에게 대해 묻자, 정염은 “천상의 대사명성(大司命星)인데, 인간 세상에 귀양 와서 사람 목숨의 길고 짧음을 주관하고 있다네.” 라고 답하였다.<sup>27)</sup>

26) 대감(大監)이란 단어는 조선시대에 정이품 이상의 벼슬아치를 높여 부르던 말인데, 민속에서는 무당이 굶할 때에 집이나 터, 나무, 돌 따위에 붙어있는 신이나 그 밖의 신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27) 노명흠, 김동욱 역, <친구에게 목숨을 덜어준 정염>, 『(국역)동패락송』, 아세아문화사, 1996, 62~64면.

친구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키는 남자의 집요함에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본다. 거절하는 친구의 입장을 헤아리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그는 마침내 친구의 수명을 17년이나 빼앗아 장수(長壽)를 누리게 된다. 또 다른 문헌설화에서는<sup>28)</sup> 친구의 아버지가 정염에게 찾아와서 병에 걸린 아들을 살려낼 방도를 눈물로 애걸하기도 한다. 정염이 ‘친구의 수명(壽命)이 이미 다한지라 복창 자신의 수명에서 십 년을 덜어서 보태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자, 친구의 아버지는 대뜸 그 방법을 요구한다. 아들을 살리려고 타인의 수명을 빼앗는 청원을 거리낌 없이 하는 아버지의 이기적인 태도가 놀랍다. 생사고락(生死苦樂)을 함께 하는 친구끼리는 수명마저도 공유할 수 있다는 강박적인 우정관(友情觀)이 포착되는 대목인 것이다.

‘나의 생명은 곧 친구의 생명’이라는 이런 인식은, 친구는 나의 분신(分身)이며 따라서 나의 육체는 친구의 육체이기도 하다는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한다. 아래 설화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7) 이목(李睦)은 집안도 넉넉하고 처자가 있는 가정의 가장이다. 그러나 혼자 불교에 심취되어 항상 집을 나가고 싶지만, 아내와 자식의 불행해짐이 두려워 결행하지 못했다. 하루는 혼자 사는 친구를 초청해 놀다가, 가족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자게 했다. 그리고는 밤중에 다 잠든 사이, 친구에게 자기 가족을 데리고 살아 달라는 간곡한 사정을 편지로 적어 벽에 붙이고, 문을 열고 나가서는 밖에서 문을 잠그고 못질을 해서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 놓았다. 잠을 깬 친구가 문을 부수고 나와 이목 친척들을 불러 사정을 설명하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친구를 찾아 해뻐다. 그러나 찾지 못하니, 이목의 친척들이 다시 모여 의논하고, 그 친구를 찾아가 이목의 가족을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옹하게 되었는데, 이목은 이후에 무등산 월출사에 있는 것을 보았다.<sup>29)</sup>

이목은 출가(出家)를 결심하였지만 아내와 자식이 걱정되자, 독신(獨身)인 친구에게 가족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친구와 가족들을 같은 방에서 잠자

28) 노명흠, 김동욱 역, <친구의 수명을 연장시켜준 정염>, 『(국역)동괘략송』, 아세아문화사, 1996, 213~215면.

29) 유몽인, 신익철 외 옮김, <이목의 출가>, 『어우야담』, 돌베개, 2009, 109면.

게 한 다음, 문에다 못질을 해서 못 나오게 했다. 가부장으로서 이목의 이런 결정은 가족과 친구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위였다. 이목은 친구가 자신의 분신이 되어서 속세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대행해주기를 기대하였다. 가족에게 새로운 가장(家長)을 세워주는 것과 독신인 친구에게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배려라고 믿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가족과 친구를 행복하게 해줄지는 알 수 없다. 친구가 이목의 가족을 떠맡는 것이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갑자기 사라진 남편 대신 새로운 남자와 동거해야 하는 아내의 입장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목은 그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고 자율적인 선택권도 주지 않았다. 그는 불승(佛僧)이 되고픈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가족과 친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이다. 이목의 가족애와 우정이란 실상 이기적인 삶을 포장하는 비윤리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친구를 자신의 분신이라고 믿고 모든 것을 친구와 공유하려는 시도가 구비설화에서 자주 발견된다. 특히 아래의 두 설화는 그 극단적인 사례를 형상화하고 있다. 친구끼리 서로의 아내를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8) 절친한 친구인 이씨와 김씨는 서로 깊은 속을 터놓고 지냈다. 김씨는 자식이 많았지만 이씨는 재산은 많아도 자식이 없었다. 이씨의 아내는 김씨에게 부탁해서 자식을 낳아야겠다는 남편의 제안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김씨는 이씨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하면서 지금은 몸이 약하다며 자꾸만 약속을 미뤘다. 상복을 입은 김씨는 보약을 달여 놓으면 저녁에 가겠다고 하고는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이씨가 보약을 대신 다 먹었다. 마침내 이씨네 집으로 온 김씨는 자신의 상복을 벗어주면서 이씨에게 그걸 입고 아내에게 가라고 했다. 이씨는 김씨인 척하며 아내와 동침하였다. 이씨는 아이가 돌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말해주었고, 아내는 그날 동침한 남자가 분명 남편인 것 같았는데 그동안 그걸 말할 수 없어 억울했다고 하였다. 이씨와 김씨는 형제처럼 우애 있게 평생토록 잘살았다.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지, 우리가 그냥 아무나 하고 사귀는 건 친구가 아닌 것이다.”<sup>30)</sup>

9) 다정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다. 얼마나 진심으로 다정했는지 한 친구가

30) 『구비대계』 3-4, 799~802면, 정석봉 구연, <진정한 친구의 우정>.

“야, 난 네 마누라하고 하룻저녁 자 봤으면 좋겠다.”고 하자, “야, 그까짓 게 뭐 어렵나.” 며 그날 저녁 두 친구는 서로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친구의 아내를 속여서 동침했다. 두 친구의 의리가 얼마나 좋던지 그렇게 아내를 서로 바꿔서 소원을 풀었다.<sup>31)</sup>

위 설화에서는 절친한 친구끼리는 아내도 공유할 수 있다는 발칙한 상상력을 읽어낼 수 있는데, 8)번 설화의 주제 의식은 비교적 심각한 윤리적 일탈을 겪지 않고 좋은 친구에 대한 미담(美談)으로 서사가 종결되고 있다. 친구의 씨를 얻어서 아이를 낳겠다는 이씨의 황당한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않는 따뜻한 의리(?)를 보여주는 동시에, 실제로는 이씨의 생식력을 높여서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한 김씨의 배려가 찬양되고 있다. 씨를 빌려달라는 충격적인 친구의 제안은 얼핏 농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김씨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흔쾌히 승낙한다. 속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였기에, 김씨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씨의 심각한 고민을 이해하고 깊이 공감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씨는 친구의 고민을 해결해줄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천했다. 물론 외간남자와 동침하는 상황을 연출해서 친구의 아내를 속인 것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정당하진 않을 것이다. 이후로 이씨와 김씨는 ‘평생 형제처럼 잘살았다’는 결말은 이들이 친구를 넘어서 (유사)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친구의 아내와 실제로 동침한다는 9)번 설화의 분위기는 상당히 외설적이다. 친구는 나의 분신이므로 내 아내는 곧 친구의 아내이며, 친구의 아내 역시 나의 아내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화자는 “친구끼리 얼마나 진심으로 다정했는지”라는 말로 친구의 아내를 향한 두 남자의 일탈된 성적 욕망을 합리화한다. 친구끼리의 스와핑(swapping)이 “다정한 친구끼리의 좋은 의리”로 포장되는 것이다. 이쯤 되면 과연 ‘우정은 윤리적 가치인가?’ ‘우정은 가족윤리와 사회규범적 질서를 초월하는 지고(至高)한 가치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아래의 두 설화는 그런 질문을 더욱 심각하게 제기하게 되는 사연을 담고 있다.

31) 『구비대계』 2-6, 320면, 심운택 구연, <친구 간의 우정>.

10) 절친한 사이인 김생원과 정생원은 늘 같이 다니고 혼자 갈 때는 서로 노자를 챙겨 주곤 했다. 하루는 김생원이 주막에서 작은 시비로 악한(惡漢)을 때려 죽게 해서 살인자로 구금됐다. 이 소식을 들은 정생원이 옥에 가보지 않자, 김생원은 물론 가족과 이웃들이 모두 비난했다. 정생원은 영리한 종을 시켜 술을 가지고 시체를 지키는 사람에게로 가서 술을 권하여 취하게 한 다음, 그 시체를 끌어다 묻고 자기가 그 시체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는 시체를 지키는 사람이 왔을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그 김가 놈을 속여서 고생 좀 시키려고 억지로 죽은 채했더니 힘들구나.” 하고는 달아나 버렸다. 드디어 김생원은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 되어 풀려났다. 정생원은 자신의 계락을 아는 그 종을 죽여서 없앤 후에, 김생원에게 나타나지 않아서 원성을 샀다. 괴로워하며 지내던 정생원이 드디어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되자, 아들들에게 상자를 주며 유언했다. “내가 죽어도 김생원이 오지 않을 텐데, 아마 대상 때에는 올 것이다. 그때 이 상자를 드러라.” 하고 죽었다. 정생원의 말대로 김생원이 오지 않다가, 대상 때에 와서 슬피 울었다. 정생원 아들이 부친의 유언과 상자를 전하자, 김생원이 상자를 열었는데, 그 내력이 적힌 편지가 있었다. 김생원은 자신의 살인이 정생원의 계락으로 무마되었음을 비로소 알고, 땅을 치고 슬피하다가 역시 병들어 그 길로 사망했다.<sup>32)</sup>

11) 아랫논 주인과 윗논 주인이 물대는 일로 다투곤 했다. 어느 날 윗논 주인이 아랫논 주인을 밀쳐서 그만 죽고 말았다. 아랫논 주인의 아들들이 윗논 주인 집에 와서 아버지 시체를 방안에 들여다 놓고 소와 닭을 잡아먹으며 농성을 벌였다. 윗논 주인은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친구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친구는 빵을 때리며 화를 냈다. 윗논 주인이 탄식하던 중에,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시체가 있는 방의 불을 끄고 그 시체를 몰래 빼내 치워버리는 일을 모의했다. 친구가 시체가 있는 방의 촛불을 바람을 불어 꺼버리자, 사람들이 놀라서 차례로 불을 켜지만 번번이 다시 꺼졌다. 사람들이 무서워 혼란한 사이에 그 친구는 시체를 밖으로 내던지고 그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가며 ‘뜨거운 방에 눕혀놓았다고 욕하면서 이불을 들고 가버렸다. 시체가 없어진 덕분에 윗논 주인은 살인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윗논 주인은 그 친구를 미워하며 돌아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 친구가 찾아와 사실을 말하고 자신의 행동은 남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였다. 윗논

32) 爲友殺奴, 水原有金鄒兩生員, 『奇聞』,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2, 건국대출판부, 1998, 293~294면.

주인은 오해를 풀고 친구의 우정에 감탄하였다.<sup>33)</sup>

두 편의 설화는 모두 친구가 살해한 사람의 시체를 몰래 처리해서 살인 사건을 은폐함으로써 친구의 살인죄를 무마해주었다는 사연을 담고 있다. 문헌설화인 10)번에서는 정생원이 살인을 저지른 김생원을 구하려고 몰래 시체처리를 시켰던 중범(從犯)인 남자종까지 살해함으로써 완전범죄를 꾀한다. 친구의 살인죄를 덮으려고 새로운 살인을 저지르는 심각한 서사전개는 우정이 모든 도덕적 가치에 우선한다는 문제적 결론을 도출한다.

한편 10)번의 서술자는 이런 우정의 도덕적 결함을 희석시키려는 의도에서, 김생원의 살인은 악한(惡漢)과의 사소한 시비 끝에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었음을 명시한다. 악한을, 그것도 우발적 사고로 살해한 것이므로 김생원은 억울하다는 주장일 것이다. 정생원은 김생원을 위하여 평생 진실을 감추고 친구와 절교(絶交)까지 하면서 이를 괴로워했다. 이 설화에서는 정생원의 죽음이 마치 김생원과 절교상황과 자신의 진심을 전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에서 기인한 것처럼 서술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무고한 중을 살해하고 살인을 은폐하였으며, 시신을 몰래 묻어버림으로써 피해자의 가족이 장례를 치르고 망자(亡者)를 위로할 기회마저 영원히 박탈한 자신의 패륜적 범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정생원이 괴롭게 고민하다 병을 얻어 죽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김생원 역시 자신을 구명(救命)해준 친구를 오해하여 미워했음을 자책하다 죽고 만다는 서사적 종결은, 이 설화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사회적 정의(正義)의 도덕적 균형감을 최소한이나마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구비설화인 11)번에는 앞에서 보여준 섬세한 도덕적 합리화의 수사적 장치가 발견되지 않는다. 윗논 주인이 물대는 일로 다투다가 아랫논 주인을 그만 죽이고 만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므로, 윗논 주인이 물꼬를 막고 농경수를 독점한 데서 일어난 분쟁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랫논 주인보다는 윗논 주인이 악한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윗논 주인은 친구는 피해자의 시체를 묻어주지 않고 밖으로 내던져버리는 패

33) 『구비대계』 8-9, 685~689면, 김덕이 구연, <친구는 과연 친구>.

악(悖惡)까지 저지른다. 두 친구는 마침내 오해를 풀었고 친구의 우정에 감탄했다는 간략한 서술로 종결하는 것 역시, 우정과 사회적 규범 간의 윤리적 충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희박함을 보게 된다. 이 설화에서 발견되는,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식은 우정이 맹목적인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되고 있음을 시사한다.<sup>34)</sup>

### III. 친구를 향한 불안한 시선

#### 1. 친구 : 경쟁자, 잠재적 배신자

구비설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친구’ 담론은 모범적인 우정보다는 주로 배신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물과 공기의 존재가 그러하듯이, 친구로부터 얻는 정서적 위로와 물질적 원조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특별한 이야깃거리가 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결과일 것이다. 그에 비해, 신뢰했던 친구로부터의 배신은 매우 충격적이라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풍성한 이야깃거리가 되었을 법하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친구보다는 나쁜 친구와 마주친 경험이 많았던 탓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의 미담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에 비해 나쁜 친구에 대한 정보를 놓치는 것의 피해가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타자에게 당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많지만, 정작 자신은 남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인색한 것이 인간의 이기적 본성인 듯하다. 구비설화에는 이처럼 나쁜 친구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주는 설화가 풍부한데, 아래의 경우처럼 주로 친구의 소유를 차지하기 위해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야기이다.

12) 두 친구가 함께 낚시질을 하러 갔다. 한 친구가 물속에서 동삼(童參)을 발견하고 친구와 나눠가지려고 허리에 노끈을 매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동삼을 캐려는 순간, 노끈을 잡고 있던 친구가 동삼을 독차지할 욕심

34) “친구간의 의리는 지극히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타인의 권익에 해를 끼치거나 공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하게 될 때에는 곧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되게 된다.” 이승환·김형철, 『의리와 정의』, 『철학연구』 제37집, 철학연구회, 1995, 15~16면.

에 노끈을 놓아버렸다. 물에 빠진 친구는 배신한 친구를 원망하며 마지막 동삼을 먹었다. 그때 물에 잠겼던 용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용꼬리를 잡고 물 밖으로 나왔다. 집에 와보니 배신한 친구는 동삼을 팔아 집과 논을 사서 부자가 되어 있었고 자신의 아내는 여전히 가난했다. 배신한 친구는 그가 살아있음을 보자 깜짝 놀라며 잘못을 빌었다. 자신의 전담을 되찾은 친구는 그래도 배신한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잘 나눠주고 잘살았다.<sup>35)</sup>

13) 사냥꾼 이주창은 총이 소리 내어 우는 것을 불길한 징조로 여긴 아내와 함께 사냥을 나섰다가 길을 잃어, 산적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다. 이주창과 의형제를 맺고, 함께 사냥에 나섰던 산적은 이주창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이주창을 절벽으로 떨어뜨리고 돌아왔다. 산적이 남편을 죽였음을 눈치 챈 이주창 아내는 도망을 쳐서 절벽에서 남편을 만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후 이주창이 홀로 사냥을 갔을 때, 총이 또 울고 이주창은 길을 잃게 되었다. 산속에서 부잣집 외동딸이 실성하여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이주창은 부잣집에 딸을 데려다주고, 의남매를 맺어 재산을 나눠가졌다.<sup>36)</sup>

위의 구비설화들에서는, 친구의 재물이나 아내가 탐나서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불의(不義)하고 비정(非情)한 인물이 등장한다. ‘친구의 효용’은 친구들 간의 협동과 공생(共生)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분명히 증명될 것이다. 12)번 설화에서 동삼을 발견하였을 때, 그가 만약 혼자였다면 그것을 캐려고 물속에 뛰어드는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두 사람 중 줄을 잡고 기다리는 쪽보다 직접 물속에 들어가는 쪽이 상대방을 향해 훨씬 더 진실하고 단단한 신뢰를 지녔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상대방은 자신을 믿고 물속에 뛰어든 친구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부족했다. 그는 오직 동삼을 독차지할 욕심에 눈이 멀어서 물속에 있는 친구를 버렸던 것이다. 인간의 이기적 본성 가운데서 물욕(物慾)이야말로 우정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유효한 시험지임을 보게 된다.

잠시 이 설화의 서사전개를 주의 깊게 지켜보자. 그가 만약 가장 큰 동삼을 캐고 있는 친구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둘이 함께 동삼을

35) 『구비대계』 6-5, 375~377면, 김달심 구연, <재물에 눈 어두운 친구>.

36) 『구비대계』 4-6, 156~172면, 유조숙 구연, <전라도 땅 이주창>.

나누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아마도 친구를 죽음에 내몰고 독차지한 것만큼의 보상은 충분히 얻었을 법하다. 마지막에 캔 가장 큰 동삼이 이전의 자살한 것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값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죽을 위기에 처했던 친구는 가장 큰 동삼을 먹은 후 용꼬리를 잡고 물속을 빠져나온다. 그가 물 밖에서 바라본 동삼의 의미는 시장에 내다 팔면 큰 돈이 되는 귀한 것이었다. 그러나 물속에서 깨닫고 보니, 동삼은 자신을 유혹해서 죽음으로 내몬 요물(妖物)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어차피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될 동삼을 먹어치운다. 덕분에 기운을 내서 용꼬리를 잡고 살아난 그는, 재물욕심과 사람에 대한 어설픈 믿음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반추했을 것이다.

한편 이 설화의 매력은 종결부에서 발견된다. 기사회생(起死回生)하여 돌아온 남자는 동삼 값만 돌려받았을 뿐, 자기를 배신한 친구를 응징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함께 나누고” 살았다고 한다. 그 친구처럼 자신도 역시 가난과 싸워왔기에, 재물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몹쓸 짓을 저지른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가엽게 여기고 용서했던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친구에 대한 관용과 배려를 잊지 않은 그에게서 진정한 의리를 보게 된다. 그는 진정한 친구였다.

13)번 설화에서 이주창은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과 쉽게 의형제나 의남매를 맺는다. 그는 함께 사냥하려고 산적과 결의형제를 맺었다가 배신을 당해 죽을 뻔하고 아내도 빼앗길 처지에 놓인다. 간신히 위기를 넘긴 그는 길 잃은 부잣집 딸을 구해주고 의남매를 맺어 그 집의 재산을 나눠 갖는다.

이 설화에서는 시종일관 ‘친구’ 대신 ‘의형제’나 ‘의남매’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주목해보자. 친구의 사전적 의미는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 또는 “가깝게 오래 사귀는 사람”이고 벗의 사전적 의미는 “비슷한 또래로서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이다. 즉, 친구를 얻으려면 일단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주창은 우정 자체가 “목적”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위한 “수단”으로서 동업자를 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주창이 부잣집 딸과 의남매가 된 것 역시 우정보다는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이주창이 실종된 딸을 찾아준

데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반대급부로 이주창도 그 실성한 딸을 (지적 장애인이므로) 죽는 날까지 보호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호계약을 맺기 위한 단계적 절차였기 때문이다.

## 2. 친구 : 유흥의 파트너, 원조자, 범죄공모자

이처럼 ‘친구’라는 단어에 자주 따라붙는 배신이란 연관어(聯關語)는, 친구를 어떻게 선별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리고 그 고민은 아래 설화에서처럼 ‘친구시험’이라는 감별법을 고안하게 된다. 작품의 주제를 정밀한 파악하기 위해 줄거리를 요약하지 않고 전문(全文)을 제시하기로 한다.

14) 감사 정효성(鄭孝成)은 성품이 너그럽고 따뜻하였는데, 비록 자제에게라도 가볍게 “너”라고 부르지 않았다. 일찍이 여항의 미천한 사람 하나와 사귀었는데, 집으로 데려와 함께 앉으며 벗으로 대우하였다.

그 아들 현곡(玄谷)이 간하였다. “아버님께서 이 사람과 사귀시면서 등급을 평등하게 하시니, 예모가 깎이는지라 참으로 아들들에게도 수치가옵니다.” 공이 웃으며 말하였다. “예를 논함에 어찌 신분을 논하겠는가? 내가 사람을 사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자네의 벗은 모두 얼굴로 사귀는 것이지 마음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네. 한번 시험해 보겠는가?”

마침내 부자가 밤을 틈타 미복 차림으로 갈아입고 아버지가 물었다. “자네 친구 중에 누가 제일 가까운가?” “아무개 학사올시다.” 바로 그 집으로 가서 목소리를 낮추어 알렸다. “아무개의 아버지일세. 아들이 불행히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선비이고 또 아들이 여럿 있네. 바야흐로 칼을 들고 마을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말하기를, ‘만일 숨겨주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죽이겠다.’고 하므로, 감히 잠시라도 머물게 해준다는 사람이 없네. 이에 평일의 교의(交義)를 믿고 감히 와서 매달리는 것일세.” “받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집에 연고가 있어 남의 집 사람을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여러 곳을 갔는데 모두 사대부들이었으나, 하나같이 앞 사람처럼 말하며 들어주지 않았다.

공이 마침내 그 사람(정효성의 친구)의 집에 가서 똑같이 말하자, 그가 즉시 안방으로 맞아들이며 그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 어른께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만일 그 일을 면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함께 죽는 걸세. 먼저 술부터 테워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 드려야 하겠네. 그런 다음 밥을 하여 요기를 시켜드리도록 하  
게.” 흠족해 하고 기뻐하면서 조금도 어려워하는 빛이 없는지라, 공이 크게 웃으  
며 현곡을 향해 돌아보고 말하였다. “나의 벗과 자네의 벗을 비교하면, 사귀는  
정이 어떠한가?” 현곡이 몹시 부끄러워하며 승복하였다.<sup>37)</sup>

이 설화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기문총화(記聞叢話)』에도 수록되어 있  
다.<sup>38)</sup> 정효성은 아들에게조차 예를 갖추는 너그럽고 따뜻한 성품을 지녔다.  
그가 여항의 미천한 신분과 교우하자, 아들 현곡이 낮은 신분과 평등하게  
교제하는 것은 예모가 깎이는 일이라며 불평하였다. 정효성은 자신은 신분  
을 따지지 않고 마음으로 벗을 사귀다면서 친구시험을 제안하였다. 정효성  
이 아들 현곡의 친구인 사대부들에게, ‘아들이 선비를 죽였는데 피해자의  
여러 아들이 칼을 들고 찾아다니며 살인자를 숨겨주는 자는 먼저 죽이겠다  
고 하니 잠시라도 머물게 해준다는 사람이 없다’며 호소했다. 그러자 그들  
은 모두 핑계를 대며 거절하였다. 정효성이 자신의 여항인 친구를 찾아가  
똑같이 말하자, 즉시 안방으로 맞아들이고, 정효성을 진정시키도록 아내에  
게 술과 밥을 준비하게 한다는 것이다.

설화에서 강조한 것처럼, 아들에게조차 ‘너’라는 반말을 하지 않고 예우  
하는 너그러운 성품의 정효성(1560~1637)은 공경감사로서 농민의 부담을  
감축하는 일에 힘썼다고 한다.<sup>39)</sup> 자신보다 낮은 신분인 농민을 세밀하게  
사랑하고 보살폈던 그의 따뜻한 인품 때문에 이런 설화가 전해졌을 것이다.  
또한 아들 현곡 정백창(1588~1635)은 사필(史筆)이 엄정한 사관(史官)이었  
는데, 술을 좋아하며 사대부를 업신여겼다고 한다.<sup>40)</sup> 이 설화는 현곡이 사

37) 이희준, 유화수·이은숙 역, <진정한 벗의 조건>,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578~579면.

38) 김동욱 역, 『(국역)기문총화』, 아세아문화사, 1996, 448~450면. 『기문총화(記聞叢話)』는 계서(溪西) 이희평(李義平)이 1828년에 편찬한 『계서잡록(溪西雜錄)』을 중심에 두고 1833~1869년 사이에 집성된 야담집이다.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편)』 <http://folkency.nfm.go.kr/munhak/index.jsp> 참조.

39) 정효성은 함흥판관·은진현감을 역임하고 내직으로 옮겨 호조정랑을 지냈다. 광해군 말엽에 간신들에 휩싸여 정치기강이 문란해지면서 반대세력에 의하여 탄핵, 좌천되었다. 인조반정 후 복직되어 삭녕군수·강화유수·청주목사를 지냈다. 1630년에 공경감사로서 황폐화된 농촌사회를 복구하기 위해 농민의 부담을 감축하는 등 치적을 쌓았다. 1636년 청나라군대가 재침해오자, 강화도를 지키고자 분투하다가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순사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효성>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참조.

40) 정백창은 사필(史筆)이 엄정했으므로 간당(奸黨)의 주목을 받았다. 1613년에 경망하고 아침

대부들과의 교우관계에 집착하지 않았던 이유를, 아버지가 보여준 친구시험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곡의 사대부 친구들은 모두 믿지 못할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이 문헌설화에 나타난 대조적인 요소를 아래와 같이 대립쌍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A항	B항
아버지의 교우관계	아들의 교우관계
미친한 여항인 친구	사대부 친구
마음으로 사귀(신분이 중요치 않음)	겉으로 사귀(신분과 체면이 중요)
위기에 처한 친구와 생사를 함께 하며	위기에 처한 친구를 외면함
적극적으로 보살핌	

이 설화의 주제는 B항의 교우관계를 지양(止揚)하고 A항의 교우관계를 제고(提高)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신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사대부들끼리의 위선적이고 과시적인 교우관계를 비판하고, 신분을 떠나 서로를 존중하며 간담상조(肝膽相照)하는 진실한 우정을 가꿔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사대부가 아닌 여항인과의 사귀에서 진정한 우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이 설화의 주장이다. 이는 당대 사대부사회에서 포착되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의 소산일 것이다. 사대부들의 교우관계 속에는 허위와 위선이라는 균열이 심각했던 것이다.<sup>41)</sup>

이는 우정의 본질적 속성인 ‘평등의 윤리’에 대한 진지한 통찰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양반과 여항인 사이에 싹튼 진정한 우정을 형상화함으로써, 신분계급사회에서 각자의 신분을 뛰어넘는 타자와의 소통가능성을 크게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분은 평등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 평등했기 때문이다.<sup>42)</sup>

을 잘한다는 탄핵으로 파직되었으나, 곧 대교로 복직해서 오랫동안 사관(史官)으로 있었다. 좌부승지·부제학을 거쳐 도승지를 지내고, 1635년 경기도 관찰사로 재직 중에 병으로 죽었다. 술을 즐기고 사대부를 업신여겼다고 하며, 시문을 잘하고 청렴하다는 칭송을 들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백장>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참조.

41) 이런 사정은 조선 양반사회에서 우도(友道)가 무너졌음을 한탄하는 당대 지식인의 고뇌를 고찰할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연구논문들의 목록은 앞의 주석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다.

42) “우정은 전통철학에서 전제되고 있는 동질적인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맺음으로만

이 설화가 제기한 이런 문제의식은 아래에 제시된 이인상의 『시우전』에서도 발견되는데, 14)번과 서사전개가 유사한 부분은 제외하고 그 내용을 소개한다.

15) 시정인 가운데 의리(義)로 벼를 사귀는 자가 있었는데, 늙어 병들어서 십년 동안 문밖을 나가지 못했다. 시정인의 아들은 해가 뜨면 나가서 밤이 되어야 돌아오며, 늘 희희낙락하며 잔뜩 취해 배불리 먹고는 돌아왔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와 술 마시고 먹은 사람이 누구더냐?”라고 물었다. 아들은 답했다. “저는 친구가 많습니니다. 사생(死生)을 함께 하기로 했답니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래 오늘 밤에 보자구나”라고 하였다. 밤이 되자 큰 눈이 내렸는데 아버지는 성큼 성큼 우리로 가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아와 껍질을 벗겨 삶고선 부들자리로 묶은 후 아들에게 줌어지고 그 뒤를 따라오게 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네가 죽음을 함께 하기로 한 친구네 집으로 가자!” 라고 하였다.

<중략> 아버지는 탄식하길 “네가 죽음을 함께 하기로 한 친구가 이제 없느냐?” 라고 물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없습니니다.” 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내게 숨겨진 친구가 있으니 그리로 가보자!” 라고 하였다. 당도해 문을 두드리니 아버지의 벼이 신을 거꾸로 신고 나와서 맞이했다. “십년 동안 헤어졌거늘 큰 눈이 내리는 밤에 왔구려!” 시정인은 아들이 줌어진 짐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아들이 밤에 취해서 사람을 죽였소. 그래서 시체를 업고 여기까지 온 것이오. 내 그대의 높은 의리를 익히 알고 있다오. 그대가 의리를 중히 여기면 시체가 하나로 끝나겠지만, 의리를 가벼이 여기면 시체가 둘이 되고 만다오. 그러니 시체를 숨길만한 곳이 없겠소?” 벼은 “알겠소.” 라고 답하더니, 아들의 짐을 직접 대신 메고는 집안으로 들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나를 따라오게나. 부뚜막 안쪽과 안방의 뒤편은 이중벽에 깊숙한 곳이니, 귀신도 볼 수 없고 죽은 자는 낫이 편안하고 살아있는 자도 안심할 수 있지. 빨리 서두르게나! 어디가 알고 어디가 깊숙하겠는가?” 시정인은 웃으며 짐을 풀게 하고는 사실을 말하였다. “내 그대의 마음을 익히 알고 있어서 의리를 시험하지 않아도 되었건만, 어리석은 아들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오.” 그리하여 마침내 이들은 삶은 돼지고기를 자르고 술을 사와서 취하도록 마신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아들은 분한 마음에

---

볼 수 없다. 우정은 평등하고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우정은 일상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맺음이다. 우정은 친밀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맺음이다.” 이혜정, 『여성주의, 우정 그리고 도덕적 성장』, 『한국여성철학』 제18집, 한국여성철학회, 2012, 136면.

죽을 때까지 사람들과 사귀지 않았다. 시정인의 속담에 “아들은 친구 잃고 아버지는 돼지 자르네.”라는 말이 있다. 우도(友道)는 저자거리에 있다 하겠다.<sup>43)</sup>

친구시험의 발단이 ‘정효성의 이야기’는 아버지와 여항인의 평등한 교우관계를 아들이 불평하는 데서 시작되지만, 『시우전』에서는 아들의 유흥적 교우관계를 아버지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친구를 시험하기 위한 청탁내용도 다른데, 전자는 살인을 당한 피해자 아들들의 복수를 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숨겨달라고 부탁하지만, 후자는 돼지시체를 피살자의 시체인 것처럼 짊어지고 가서 그것을 숨겨달라고 부탁한다. 이런 서사전개의 차이는 두 설화의 의미차이를 해석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시우전』은 널리 알려진 옛이야기를 이인상(李麟祥:1710~1760)이 1756년에 『전(傳)』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홍낙순의 『대릉유고(大陵遺稿)』에는 『우설(友說)』이란 제목으로, 김상정(金相定:1722~1788)의 『석당집(石堂集)』에는 『우난(友難)』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홍낙순은 자신의 벗인 이연상(李衍祥:1719~1782)이 항상 자신에게 교우의 어려움을 토로하므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sup>44)</sup>

14)번 ‘정효성의 이야기’가 수록된 『계서야담』의 편찬연대를 고려해본다면,<sup>45)</sup> 『시우전』이 더 이른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인상이 당시에 전승되던 ‘정효성의 이야기’에다가 ‘돼지시체’ 모티프를 삽입하여 『시우전』으로 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우전』과 유사한 이야기가 비슷한 시기의 여러 문헌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미 돼지시체 모티프가 첨가된 설화가 흔하게 떠돌고 있었을 수도 있다. 19세기 중엽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구야담』에도 『시우전』과 유사한 설화가 수록되어 있고,<sup>46)</sup> 구비설화로도 유사한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

43) 이인상, <시우전(市友傳)>, 『뇌상관고(雷象觀藁)』 제5책. 김수진,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2, 202~205면의 해석을 인용함.

44) 김수진,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2, 201면 참조.

45) 『계서야담』은 확실한 편찬연대를 알 수 없으나, 이에 앞서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계서잡록(溪西雜錄)』(성균관대학교도서관 소장본)의 서문이 183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1833~1842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리라 추정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계서야담> 참조.

46) 이월영·시귀선 역, <아들에게 진정한 우정을 보여준 아버지>, 『청구야담』, 한국문화사,

아,47) ‘정효성 이야기’는 『계서야담』과 『기문총화』에만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동시에 전승되고 있었는데 계서(溪西)가 ‘정효성의 이야기’만 채록했거나, 아니면 전승되어오던 이야기에서 ‘돼지시체’ 모티프를 삭제하여 개작했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학적 형상화라는 면에서 볼 때, 상황의 핍진성과 긴박함을 극대화해주는 흥미소인 ‘돼지시체’ 모티프를 일부러 삭제하는 방식으로 야담을 개작했을 것 같지 않다. 『시우전』에서 살인사건의 증거로 기능하는 ‘돼지시체’라는 근사(近似)한 소품은, ‘친구시험’을 당하는 수험생에게 살인사건의 사실성을 전달하면서 문제 상황의 긴박함을 증폭시키는 효과적인 소도구(小道具)이기 때문이다. 거적에 싼 시체를 짊어진 채로 너무 덥고 무거워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아들의 연기(演技)장면은, 흥미진진한 연극을 관람하게 된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탁월한 미장센(mise-en-scène)인 것이다. 이처럼 설화의 흥미를 극대화하는 장치들이 원본에 더해지는 방향으로 개작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존인물인 정효성의 일화에 문학적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점차 『시우전』과 같은 형태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시우전』에서 사용된 ‘돼지시체’라는 모티프의 극적(劇的) 효과이다. 이것은 살인사건의 증거물로 기능하면서 당면한 문제 상황의 리얼리티를 강화하여 등장인물의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극중 상황을 일시에 역전시킴으로써 상황극(狀況劇)의 종료를 알리는 핵심적인 소품이다. 그간의 긴박했던 상황은, 등에 짊어진 것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순식간에 반전(反轉)된다. 이는 등장인물들의 불안과 공포를 급속히 해소시키면서 곧바로 흥겨운 축제로 장면을 전환하는 것이다.

오랜 만에 보는 옛 친구의 등장과 함께 자신에게 엄청난 긴장과 공포를 가져다주던 그 ‘시체’가, 알고 보니 삶은 돼지고기였다니! 이 극적 장치는 아들을 옆에 세워둔 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자신의 오랜 지기(知己)를 향

1995, 577~579면.

47) 『구비대계』 4-2, 534~537면, 김낙범 구연, <친구시험>; 『구비대계』 5-5, 629~633면, 김범창화 구연, <아버지의 선견지명>; 『구비대계』 8-14, 244~247면, 박영호 구연, <참된 친구>; 『구비대계』 6-11, 612~613면, 김병조 구연, <진짜 친구는> 등 이외에도 다수가 전승되는데, 모두 『청구야담』 소재 설화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해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던 주인공의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적 긴장과, 이 상황극을 지켜보던 관객들의 몰입까지도 일시에 이완시키거나 해방시킨다. 이런 비극에서 희극으로의 급속한 전환이 촉발해낸 정서적 해방감과 해학적 쾌감은 마침내 한 바탕의 술판으로 갈무리되면서 대단원을 준비한다. 노쇠해져서 십 년 동안 집안에만 머물던 아버지는 오랜 만에 외출하여 격조(隔阻)했던 옛 친구와 거나하게 술판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매일 밤 외출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던 젊은 아들은 이 흥겨운 카니발에 동참하지 못한 채 기가 죽어서 고개를 떨구고 서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이런 전도(顛倒)된 상황은, ‘친구시험’이라는 이 내기의 승자(勝者)를 명쾌하게 판정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설화의 문학적 상상력은 “아들은 “분한 마음에 죽을 때까지 사람들과 사귀지 않았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이 드라마를 종결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진정한 친구를 찾게 해준 게 아니라, 아예 교우관계 자체를 일절 끊게 한 셈이 되었다. ‘굳이 친구 따위는 사귀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우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14)번의 ‘신분이 다른 사람과도 교제해야 한다.’라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교우관(交友觀)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시우전』은 진정한 친구란 오랜 시간에 걸친 신뢰를 통해 얻어지며, 그렇게 얻은 우정은 비록 물리적으로 오래 떨어져 있어도 쉽게 퇴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sup>48)</sup> 아들이 매일 만나고 다니는 여러 친구들의 우정과, 오랫동안 사귀었지만 지금은 격조(隔阻)해진 단 한 명뿐인 친구의 우정을 대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우정의 질(質)과 양(量)에 대한 가치평가를 시도한다. 박이부정(博而不精)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택하라는 충고인 것이다.

김수진은 『우난』이나 『우설』의 주제가 ‘벗사귀의 어려움’이나 ‘진정한 벗사귀의 중요성’인데 비해서, 『시우전』의 주제는 ‘진정한 벗사귀는 시정에

48) “우정은 ‘시간이 익게 하는 과일’(코제브)이다. 시민적 우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애착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급격한 유동성과 원격적 인간의 관계는 우정의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계성을 담지한 우정의 관계에서만 신뢰가 발생한다. 즉, 시간의 검증을 거친 우정의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박혁, 『우정의 관계가 지닌 민주주의적 함의에 관한 정치사상적 고찰』, 『21세기정치학회보』 제27집, 21세기정치학회, 2017, 77면.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서사의 초두에서부터 주인공의 신분을 시정인으로 비정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인상은 참다운 벗사귀이란 도의에 입각한 교우요, 이러한 교우는 사대부층이 아니라 시정인에게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향간에 유포되던 이야기를 창조적으로 변형했다.”라고 하였다.<sup>49)</sup>

그러나 ‘친구시험’을 주동하는 인물을 사대부가 아닌 시정인으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작품 내부의 서사적 질서와 역사적 배경에서 발견된다. 바로 “돼지시체” 모티프의 삽입 때문이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인 조선 시대에 양반이 직접 돼지를 도살해서 삶은 후에 등에 짊어지고 외출까지 한다는 것은, 당대의 시대배경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시우전』에 등장하는 “성큼성큼 우리로 가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아와 껌질을 벗겨 삶고선 부들자리로 묶은 후 아들에게 짊어지고 그 뒤를 따라오게” 하는 시정인의 모습은 흡사 백정의 면모를 연상케 한다. ‘돼지시체’ 모티프를 삽입하는 한, 주인공이 사대부로 설정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된다. 사대부가 직접 고기 안주를 마련해서 친구의 집으로 가져와 술을 마신다는 상황 설정 역시 작품의 개연성이 떨어진다. ‘정효성의 이야기’에서는 여항인이 아내에게 술과 안주를 준비하게 시킨다. ‘돼지시체’ 모티프는 이처럼 주인공을 낮은 신분으로 한정짓게 하는 것이다.

위의 두 설화가 지향하는 주제의식은 동일할까? ‘진정한 우정은 사대부가 아닌 시정인들에게 있다’라는 주제는 등장인물이 모두 시정인으로 설정된 『시우전』에 우선 해당된다. 반면 ‘정효성의 이야기’는 사대부인 아버지와 여항인 친구 사이의 우정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다해 사귀는 것이 진정한 우도이다’라는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물론 아들이 사귀 사대부들보다 아버지의 여항인 친구가 더 훌륭했으므로 ‘진정한 우도는 여항인에게 있다’라는 논리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를 논함에 어찌 신분을 논하겠는가? 내가 사람을 사귀는 마음으로 써 하는 것이지만, 자네의 벗은 모두 얼굴로 사귀는 것이지 마음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네.”라는 정효성의 언급으로 볼 때, 이 이야기의 주제는 ‘신분을 뛰어넘는’ 진정한 우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49) 김수진,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06면.

‘친구시험’이 시작된 동기를 설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두 설화가 지향하는 주제적 차이가 발생한다. 여형인 친구를 예우(禮遇)하는 아버지를 아들이 자신의 체면이 상한다며 비난하는 것과, 친구들과 날마다 방탕한 유흥을 즐기는 아들을 아버지가 걱정한다는 것은 사건의 발단부터 그 성격이 다르다. 전자에서는 아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가 폄하했던 아버지의 친구가 진정한 벗으로 판명되지만, 후자에서는 아버지의 예상처럼 아들의 친구들이 무익(無益)한 사람들이었음이 드러난다.

친구를 시험하는 문제의 성격에서도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난다. ‘정효성의 이야기’에서는 ‘보복살인(報復殺人)을 막기 위한 범죄자의 신병(身柄) 보호’를 요청한 것이지만, 『시우전』에서는 ‘살인죄 은폐와 시체유기의 공모(共謀)’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판이하다. 전자는 인명(人命) 보호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상(情狀)이 참작(參酌)될 만하지만, 후자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현재 위험한 행위이긴 해도 도덕적 결함이 적은 것이고, 후자는 살인자의 공범이 되어야 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두 시험문제의 난이도(難易度)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시우전』에서 이렇게 시험문제의 난이도를 높인 것은, 친구가 선택하는 희생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주기 위함이다. 진정한 친구란 때로는 패륜행위까지 감수하며 친구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두 설화는 ‘진정한 친구’로 판명된 인물들이 보여준 반응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자에서는 심리적 안정을 주고 음식을 제공하여 돌보려고 애쓰지만,<sup>50)</sup> 후자에서는 시신의 은폐 작업에 즉시 착수한다. 이인상은 시신을 유기하는 이런 범죄행위의 윤리적 흠결(欠缺)을 회색시키려는 의도에서 “귀신도 볼 수 없고 죽은 자는 낮이 편안하고 살아있는 자도 안심할 수 있지.”라는 대화를 삽입하였다. 죽은 자의 낮을 배려하고자 하는 선(善)한 의도를 지녔음을 강조함으로써, 시체유기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면서 합리화하려는 의도적 수사(修辭)인 것이다. 망자(亡者)의 시신(屍

50) 『계서야담』과 『기문총화』는 이 부분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여준다. 전자에서는 아내에게 말하길, “이 어른께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만일 그 일을 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함께 죽는 길세(此翁有難 如或不免 五輩與之同死)”라고 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이 어른께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만약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우리들도 함께 죽는 것을 면할 수가 없다네(此翁有難 如或知之 不免五輩與之同死)”라고 말한다.

身)을 유기함으로써 유족이 그의 장례를 치러 영혼을 위로하고 장사(葬事) 지낼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박탈하는 패륜(悖倫)행위를, 우정이라는 명분으로 호도(糊塗)하는 데서 겪게 된 이인상의 도덕적 자기검열의 결과였을 것이다. 인(仁)이라는 유교이념의 실천을 신분적 정체성으로 삼는 사대부의 윤리의식에 비추어 볼 때, 아무리 시정인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이런 패륜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것은 주저되었을 것이다.

한편, “내 그대의 마음을 익히 알고 있어서 의리를 시험하지 않아도 되었건만, 어리석은 아들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요.”라는 궁색한 변명은, 십 년 만에 찾아간 친구에게 저지른 그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결례(缺禮)였는지를 상기시킨다. 어떤 의도였던 간에, 그럴 듯한 증거까지 내밀면서 자신을 함부로 시험한 친구의 사기극에 농락당한 당사자의 기분은 유쾌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시우전』의 작가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이런 독선적인 기만(欺瞞)행위와 친구시험 방법에 내재한 그 수법의 교활함과 불의(不義)한 이미지를 지우고자 애를 썼던 것이다. 상황극이 종료되면서 시작되는 돼지고기 안주를 곁들인 한 바탕의 흥겨운 술자리는, 친구를 함부로 시험했던 무례함에 대한 사과와 그런 자신에게 신의를 증명해준 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표출하는 연극적 장치이다. 상대방 역시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흔쾌히 수용하고 친구의 의도를 용인(容認)해줌으로써 카니발적인 잔치에 동참한다.

반면에, 여항인친구를 시험하는 14)번에서는 친구시험이 종료된 후에 정효성이 여항인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설정되지 않았다. 곧바로 아들에게 “나의 벼와 자네의 벼를 비교하면, 사귀는 정이 어떠한가?”라고 서술되고 있다. 이는 채록자인 계서가 정효성의 ‘아들 훈육’이란 주제에 집중한 탓으로 보인다. 짐작컨대, 사대부계층인 계서의 문화의식과 문학적 상상력으로는, 연장자(年長者)이며 신분적 우위를 점한 사대부 정효성이 미천한 여항인에게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겸손한 장면’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듯하다.

그러나 정효성이 아들에게도 반말하지 않고 예우했다는 모두(冒頭)의 언급을 상기할 때, 그의 성정(性情)에 걸맞게 자신이 여항인을 시험했던 일을 사과하고 동시에 감사를 표했으리라고 짐작하게 된다. 진정한 친구라면, 함

부로 친구를 시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친구시험은 좋은 친구를 선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마침내 좋은 우정마저 깨뜨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시험당하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쓸모”를 시험해보는 상대방을 보면서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의 관계가 깨졌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두 설화에서 발견하는 동일한 주장은 오랜 연륜을 쌓은 아버지가 그렇지 못한 아들에 비해 훨씬 뛰어난 혜안(慧眼)으로 좋은 친구를 가려서 잘 사귀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오랜 삶의 경험으로 인해 얻은 아버지의 감식안(鑑識眼) 덕분이겠지만, 다시 보면, 그 많던 젊은 시절의 친구들 가운데 그런 간간한 검증과정에서 살아남은 친구는 딱 한 명뿐이었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한편, 이 설화들에서 간과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아들의 수많은 술친구들 가운데에는 앞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단단한 신뢰를 쌓음으로써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할 만한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일까? 진정한 친구란 처음부터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일까? 진정한 친구를 사귀려면 일단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친구’의 본질적 의미와 교우(交友)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생각해보게 된다. ‘친구’의 첫 번째 효용은 아마도 ‘정서적 공감’을 통한 위로와 격려일 것이다. 살인죄를 짓고 불안에 떨며 찾아온 친구를 외면한 행위는 결코 아름답지 못했다. 진정한 우정이라면 최소한 그 친구의 고통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했다. 우선 따뜻한 음식과 말로 그를 보듬고 위로하면서, 자수(自首)를 권할 수는 없었을까? 친구가 스스로 죄를 반성하고 그 죄값을 치러서 양심의 자유를 얻도록 도울 수는 없었을까?

살인죄를 짓고 도망친 친구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친구의 행위는 진정한 의미가 없는 행위인가? 친구의 범죄행위에 가담하기를 거절하면 나쁜 친구인 것인가? 친구의 ‘살인죄 은폐와 시신유기’의 공모 제안을 거절하면 자격미달의 나쁜 친구라고 비난해야 옳은가? 보복살인의 위협에서 친구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선행일 수 있지만, 살인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는 행위를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고 찬양하는 게 옳을까? “진정한 우정(의리)”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내면화된 윤리(양심)와 사회적 책임(정의감)을 억압하고 있는 게 아닐지 반문하게 된다. 친구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착하고 바르게 살도록 견책(譴責)해야 하는 것

이 친구로서의 도리인 것이다. 봉우유신(朋友有信)을 말한 유교에서, 맹자는 책선(責善)의 우도(友道)를 강조했고<sup>51)</sup> 공자도 “충고하여 착하게 이끌어 주는 것”을 강조하였다.<sup>52)</sup> 또한 이수광 역시 다음과 같이 책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책선(責善)하는 것은 곧 친구의 도리이다. 선배들이 친구를 사귀는 데에는 반드시 그 허물이 있는 것을 서로 경계해 주고 도의(道義)로써 서로 권면해 주는 것을 나도 역시 보았다. 그러나 세상의 풍습이 한번 변한 뒤로는 말하는 것을 서로 꺼려서 친구 사이에도 역시 경계하고 간(諫)하는 풍도(風度)가 없다. 그러니 아아 옛날의 올바른 도를 이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다.”<sup>53)</sup>

한편, ‘돼지시체’로 친구를 시험해보는 설화적 상상력은 문헌과 구비를 막론하고 매력적인 흥미소(興味素)였던 것 같다. 구비설화에서 여러 편을 발견할 수 있다.<sup>54)</sup> 아래의 구비설화는 문헌설화와 대동소이한 전반부를 제외하고 제시한다.

16) 아들이 다른 친구들을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그 친구는 이들을 안으로 불러들여 불을 때고 술을 내어왔다. 아버지는 친구에게 ‘오늘이 부자간에 친구시험을 하는 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친구가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알아챘다고 대답하였다. 아버지는 가져간 돼지로 잔치를 벌였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친구란 돈 있을 때는 몰라도 돈 떨어지면 다 소용없는 것이라며, 한 명이라도 알차게 사귀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였다.’<sup>55)</sup>

위 설화에서 친구는 시체를 자신이 물어주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그저 겨울밤에 추위를 느낄 친구를 따뜻한 방으로 데려와서 술부터 권한다. 그는 처음부터 사태를 파악했었다는 것이다. 두 친구는 아래와 같은 대화를

51) “옳은 일을 하도록 충고하는 것이 벗사귀의 도리이다.(責善, 朋友之道也)”(『孟子』, 『離婁』下)

52) “子貢問友, 子曰, 忠告而善道之, 不可則止, 無自辱焉.”(『論語』, 『顏淵』)

53) 이수광, 남만성 역, 『지봉유설』 하, 을유문화사, 1974, 221~222면.

54) 『구비대계』에서 15편 가량을 찾을 수 있는데, 모두 ‘돼지시체’ 모티프를 갖고 있다.

55) 『구비대계』 4-2, 534~537면, 김낙범 구연, <친구시험>.

주고받는다.

“우리 부자간이 오늘 칭구 섬 판여. 그래 섬 보는 날인디 우리 자식 섬 보구 나도 내 칭구 섬 보는 날여.

그렇게 그래 그게 실지, 그게 참 말이 그렇지, 날송장을 짚어지구 자네 집이 왔겠나?”

“그러면 그렇지 칭구가 참 날송장 짚어지구 우리 집이 왔겠는가? 나두 속으루는 그만한 생각 했어.”

“그럴 테지 자네두. 참 실지 그러면 어떡할 테지만 칭구집까장 날송장을 짚어지구 왔겠나?”<sup>56)</sup>

주인공은 시체를 메고 친구를 찾아가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하고, 상대방도 그런 의견에 동의한다. 친구를 곤란하게 하는 이런 식의 상황극은 이미 그 자체가 비정상임을 주인공도 역시 인정한다는 뜻이다. 시험문제의 신뢰도가 떨어진 셈이다. 화자는 ‘한 명이라도 알차게 사귀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로, 교우관계는 폭이 아니라 깊이가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 다른 구비설화에는 아래의 내용이 종결부에 첨가되어 있다.

17)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의 행동이 미답지 못해서 자신이 죽으면 재산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아들에게 노끈을 주며 언젠가 목매달아 죽을 때가 오면 이것으로 뒷방에 가서 목을 매달라고 했다. 아버지가 죽자, 아들은 재산을 탐하는 친구들 때문에 유산을 모두 잃고 배가 고파서 살 수 없게 되었다. 아들이 뒷방에 가서 아버지가 주신 노끈으로 목을 매어 죽으려고 하다가 천장을 치니 수억 대의 돈이 쏟아졌다. 아들은 아버지가 이 재산으로 살라고 남겨주신 돈임을 깨닫고, ‘이제 친구고 뭐고 소용없다. 내가 살아야지’ 라며 새로 논과 밭을 사서 자손만대 잘살았다.<sup>57)</sup>

위에 구비설화 두 편에 나타난 “친구”에 대한 문화적 상상력은 속물적(俗物的)이다. 친구란 그저 내 돈을 탐내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귀는 일은 위험하며 손해가 되는 무익한 일이 된다. “소용

56) 『구비대계』 4-2, 537면, 김낙범 구연, <친구시험>.

57) 『구비대계』 5-5, 629~633면, 김법창화 구연, <아버지의 선견지명>.

없는” 친구보다는 아버지가 천장에 숨겨둔 돈이 훨씬 더 믿을 만하고 쓸모가 있다는 것이다. 친구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 없고 수단적 가치로 전략하게 된 사태를 보게 된다.

이런 설화들에서 성찰해야 하는 중요한 맹점은 ‘친밀함을 빌미로 친구에게 자행되는 무례(無禮)함’이다. 막역한 친구이므로 오래도록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한밤중에 불쑥 찾아가 매우 곤란한 부탁을 하는 결례(缺禮) 정도는 당연히 용인(容認)되어야 한다는 오만한 생각에 담긴 폭력성을 간파해야 한다. 그것은 지극히 유아적인 우정이며 자기중심적인 사고(思考)이기 때문이다. 친구는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공감의 대상이지,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나의 부속물(附屬物)이거나 내 필요를 채워주는 원조자가 아니다. 친구를 마치 공동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 역시 ‘친구’가 아닌 ‘동업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친구는 내 인격의 성숙을 돕는 스승이며 삶의 동반자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친구는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다.<sup>58)</sup>

친구를 시험해보겠다는 발상(發想)이 가능한 것은 이미 친구에 대한 나의 태도와 신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친구시험’을 소재로 한 설화들에게 발견되는 문제점은 이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기성찰의 시각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저 아들을 훈육하겠다는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불시에 친구를 찾아가서 그를 기만하고 괴롭히는 자기 자신이야말로, 친구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결핍된 나쁜 친구임을 성찰하지 못했던 것이다. 친구의 배신을 걱정하기 전에 혹시 자신부터 친구를 배신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타자를 향한 의심의 눈을 치켜뜨는 일보다는, 자신은 지금 진정한 친구로 살고 있는지를 자성(自省)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모든 만남은 결국 유유상종(類類相從)이기 때문이다.<sup>59)</sup>

58) “진정한 우정에서 이익은 우정이 낳는 여러 결과들 중 하나이지 그것 자체가 동기는 아니다. 즉, 우정이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정이 이익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우정의 관계 자체가 가져다주는 행복이야말로 충분한 이익이다.” 박혁, 『우정의 관계가 지닌 민주주의적 함의에 관한 정치사상적 고찰』, 『21세기정치학회보』 제27집, 21세기정치학회, 2017, 70면.

59) “현재 우리 사회는 ‘참된 우정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원적 질문에 선명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참된 우정’의 전제 조건으로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박 관념만 존재할 뿐, ‘내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반문을 하지 않는다.” 강민규,

#### IV. 마무리

문헌과 구비(口碑)로 전승되는 설화작품에서 ‘친구·우정’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과 문화의식을 살펴보았다. 특히 ‘우정’을 주제로 삼은 설화들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개요는 주로 ‘청탁’과 ‘배신’으로 확인된다. 진정한 친구란 도덕성과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친구의 청탁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문화의식이 지배적이었다. 친구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 행위가 비록 사회적 정의, 공적 질서, 도덕적 규범, 인간의 보편적 윤리를 훼손할지라도 친구를 위한 ‘의리(義理)’라는 명분으로 용인(容認)되고 미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과 구비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설화작품에서, 친구를 향한 기대역할의 1순위가 바로 나의 청탁을 수용하는 사람임이 드러났다. 이런 전통사회의 문화의식은 현대 자본사회에서도 여전히 강력해 보이는데, 친구가 가장 절실한 순간은 바로 ‘재정보증’이 필요할 때이다. 재정보증 청탁은 가장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고난도의 친구시험 문제이다. 현대인은 친구의 재정보증으로 인한 패가망신을 겪으면서 ‘우정’의 가치와 효용에 대해 회의를 느끼곤 하는 것이다. 우정을 내세운 이런 ‘청탁’ 문화는, 빈번하게 공적 질서와의 윤리적 충돌을 일으키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친구의 비리(非理)를 눈감아주고, 그의 불법행위를 돕기도 하며, 자신의 공권력을 사사롭게 집행하기도 한다. 공의(公儀)보다 온정주의(溫情主義)를 선호하는 이런 문화의식은 유교문화와도 일정 부분 관련되어 있지만,<sup>60)</sup> 우리의 역사적 삶의 궤적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한국인들은 혈연과 지연(地緣)을 매개로 한 폐쇄적 인간관계망에 기초한

『우리나라 중세 우도론(友道論)에 대한 고찰 I-우도론(友道論)의 사적(史的) 전개-』, 『동방한문학』 제71집, 동방한문화회, 2017, 9면.

60) “정의에 어긋나는 경우라도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서양에서보다 훨씬 관대하다. 공자가 直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자식이 관가에 고발하는 것은 참된 의미의 直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자식 된 도리로서 비록 부모가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친구지간에도 원용될 수 있는 의리의 정신이다. 동양의 의리정신에 객관성과 보편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의리의 정신은 서로 감싸주는 정신이고 상호 화합하는 정신이다. 이에 반하여 정의의 정신은 시시비비를 따져서 불의를 처벌하고 정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이승환·김형철, 『의리와 정의』, 『철학연구』 제37집, 철학연구회, 1995, 55~56면.

농경사회의 운명공동체적 삶에 익숙해져 있었고, 개인 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자본주의경제구조는 상당히 낮선 것이었다. 급속히 진행된 근대자본주의사회로의 이행은, 현대인에게 신용사회에 적합한 시민의식을 학습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물질적 풍요를 이룬 것에 비해서 우리의 시민의식의 형성은 훨씬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흔히 발생하는 후진적인 부정부패, 부도덕한 자본의 축적, 심각한 집단이기주의 등의 사회문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이에 요구되는 신의와 정직, 공적 윤리와 사적 윤리의 경계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sup>61)</sup> 이런 사회문제의 원천을 ‘청탁’ 담론에서 탐색할 수 있었다. 청탁의 거부는 곧 배신을 의미하므로, 당사자는 청탁의 도덕적 결함을 묵과한 채 청탁을 수용하기 마련이었다.

교우관계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배신’이었다. 이는 우정이 목적이 아닌 도구로 기능할 때 나타나는 흔한 결과이다. 설화문학적 상상력은 ‘잠재적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역시 ‘치명적인 청탁’을 고안해냈다. 그러나 이런 ‘친구시험’에는 개별자로서의 상대방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친구는 또 다른 나’라는 분신(分身)이나 ‘유사가족’으로서의 친구의 개념은, 우정의 친밀성을 지고(至高)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친구의 타자성(他者性)을 완전히 소거해버림으로써 상대방을 자신의 욕망대로 제압하고 통제하려는 폭력성을 드러낸다.

요컨대, 우리의 설화문학적 상상력과 문화의식은 ‘우정’이 가져다주는 무한대의 효용만을 강조할 뿐, ‘의리’라는 명분으로 포장되는 ‘청탁’과 ‘공모’의 폭력성과 범죄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았다. 이제 우정은 인정(人情)과 의리(義理)라는 명분에 합당한 ‘책선(責善)과 보인(輔仁)의 윤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61) “친밀한 감정이 공공영역에 침투하게 되면 다양성, 개방성, 토론과 설득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영역이 아닌, 동질성, 폐쇄성, 포섭과 배제의 논란을 특징으로 하는 게마인샤프트가 되는 것이다.” 이승훈, 『공공영역과 ‘시민됨’의 문화적 조건』, 『사회이론』 제37집, 한국사회이론학회, 2010, 118면.

## 참고문헌

### 1. 자료

『論語』

『孟子』

『韓國口碑文學大系』 전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김동욱 역, 『국역 기문총화』, 아세아문화사, 1996.

노명흠, 김동욱 역, 『국역 동패락송』, 아세아문화사, 1996.

유몽인, 이월영·시귀선 역, 『어우야담』, 한국문화사, 1996.

윤근수, 『월정만필』, 『국역 대동야승』 X IV, 민족문화추진회, 1985.

이기, 『송와잡설』, 『국역 대동야승』 X IV, 민족문화추진회, 1985.

이수광, 남만성 역, 『지봉유설』 하, 을유문화사, 1974.

이월영·시귀선 역, 『청구야담』, 한국문화사, 1995.

이희준, 유화수·이은숙 역,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임방, 김동욱 외 역, 『천예록』, 명문당, 1995.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편)』 <http://folkency.nfm.go.kr/munhak/index.jsp>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 2. 단행본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2, 건국대출판부, 1998.

최정호, 『복에 관한 담론-기복사상과 한국의 기층문화-』, 돌베개, 2010.

### 3. 논저

강민구, 『우리나라 중세 友道論에 대한 고찰 I -友道論의 史的 전개-』, 『동방한문학』 제71집, 동방한문학회, 2017, 7~62면.

김수진,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18세기 老論系 知識人の 友情論』, 『한국한문학연구』 제52집, 한국한문학회, 2013, 165~200면.

김풍기, 『허균의 우정론과 그 의미』, 『비평문학』 제37집, 한국비평문학회, 2010, 115~138면.

- 김혜정, 『야담에 나타난 여성의 우정실현의 두 양상』, 『돈암어문학』 제18집, 돈암어문학회, 2005, 339~359면.
- 박성순, 『우정의 구조와 윤리-한·중 교우론에 대한 문학적 사유』, 『한국문학연구』 제28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5, 297~329면.
- \_\_\_\_\_, 『우정의 윤리학과 북학파의 문학사상』, 『국어국문학』 제129집, 국어국문학회, 2001, 251~274면.
- 박수밀, 『18세기 友道論의 문학·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제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85~108면.
- \_\_\_\_\_, 『소통의 맥락에서 본 조선후기 友情論의 양상』, 『동방한문학』 제65집, 동방한문학회, 2015, 197~227면.
- 박혁, 『우정의 관계가 지닌 민주주의적 함의에 관한 정치사상적 고찰』, 『21세기정치학회보』 제27집, 21세기정치학회, 2017, 61~84면.
- 배상식, 『도덕교육에 있어서 도덕적 상상력의 의미와 적용』, 『동서철학연구』 제49집, 한국동서철학회, 2008, 418~442면.
- 신익철, 『조선후기 필기·야담에 나타난 友道의 형상과 의미』, 『동방한문학』 제69집, 동방한문학회, 2016, 93~117면.
- 이승환 · 김형철, 『의리와 정의』, 『철학연구』 제37집, 철학연구회, 1995, 15~57면.
- 이승훈, 『공공영역과 ‘시민됨’의 문화적 조건』, 『사회이론』 제37집, 한국사회이론학회, 2010, 101~276면.
- 이혜정, 『여성주의, 우정 그리고 도덕적 성장』, 『한국여성철학』 제18집, 한국여성철학회, 2012, 123~149면.
- 임형택, 『朴燕巖의 우정론과 윤리의식의 방향-〈馬駟傳〉과 〈穢德先生傳〉의 분석』, 『한국한문학연구』 제1집, 한국한문학회, 1976, 95~117면.
- 장현근, 『한국사회의 연고주의 담론과 유교와의 무관련성 연구』, 『아태연구』 제15집,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08, 105~124면.
- 정만섭, 『友道와 友道論의 概念과 來歷』, 『한국고전연구』 제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359~404면.
- 한규석, 『한국인의 공과 사의 영역 : 공정과 인정의 갈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6집, 한국심리학회, 2000, 39~63면.
- 한승완, 『‘연줄망’에서 ‘연결망’으로-한·중·일 3국의 연고주의 유형 비교-』, 『사회와 철학』 제8집, 사회와철학연구회, 2004, 97~121면.

A study on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cultural consciousness for  
'friends • friendships'

-Taking notice of the discourses of 'Request' and 'Betrayal'-

Lee, In-Kyung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cultural consciousness of "friends and friendship" in Korean Oral Narratives which have been passed on oral tradition and by books. The themes of the events appearing in the folktales of "friendship" are mainly based on "request" and "betrayal." The dominant cultural consciousness was such that a true friend would do his friend a favor even at the sacrifice of his morality and life. Since rejection of a favor was considered as an act of betrayal, those who were asked for a favor of a friend would do as requested in spite of the moral flaws of the requests. The "favors" in disguise of friendship had often caused a moral clash with the public order. they had turned blind eyes to the corruption of their friends, helped their illegal activities, and even arrogates their public authorities. It had proved that everything is tolerated and beautified by the name of his "loyalty to a friend", even if the action undermines social justice, public order, moral norms, and universal ethics of human beings,

The imagination of folktales had devised "Friendship test" as the most effective strategy to distinguish a true friend from a potential traitor. This has a serious problem, however, of that there is no considering and respecting the other's independence and privacy. Also, the perspective of regarding a friend as one's alter ego emphasizes the intimacy of friendship, while reveals the violence to control his friend according to his own desire withou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dividuality of the counterpart. The imagination of Korean folktales and cultural consciousness only emphasized the infinite utility of "friendship" but did not reflect on the violence and criminality of "request" and "conspiracy" which are occurred by the name of "loyalty". A friend should be considered as a subject of love, respect, care and sympathy, not an adjunct to control at my own discretion or an assistant

satisfying my needs. A friend is a good teacher who helps me mature my personality. And a friend is a good life partner, a purpose in itself, not a means to gain profits. Not Keeping guard against our friend's betrayal but check the question whether I behave myself sincerely as a true friend. In short,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In a follow-up study, I will research how to create new friends and become true friends by surveying the folktales that show positive examples of friendship.

keywords: Korean Folktales, literary imagination, cultural consciousness, friends, friendships, request, betrayal, duty of friendships, loyalty, conspiracy.

접수일자: 2017. 9. 30. 심사기간: 2017. 10. 1.~2017. 11. 10. 게재결정: 2017. 11. 10.
---

